

6190

# 陳士鐸의 生涯와 醫學思想

金晶圭·尹暢烈\*

## I. 緒 論

東洋醫學은 陰陽五行論으로 代表되는 演繹的 哲學에 基盤을 두고 있는 醫學이다. 따라서, 學文의 探究 方法에 있어서도 論理的인 面만을 追求하여 科學的인 探究만을 꾀한 것이 아니라, 直觀的이면서 觀念的인 面까지를 果敢히 收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發展이 數千年에 걸친 臨床의 經驗에 의하여 蓄積된 結實에 依하고 있는 것도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理論의 境遇에는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簡稱)으로 代表되는 古代 醫學書籍으로부터 始作하여 그 이후의 수많은 醫家들과 그들의 著書들에 의하여 研究와 發展을 거듭해 온 것이다.<sup>1)</sup>

醫史學의 對象은 바로 이러한 醫學書籍들과 醫家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文字가 없던 原始時代에는 經驗의 蓄積을 口述이나 다른 特異한 記號에 의하여 傳하였으며 醫學의 智識 또한 이런 範疇를 넘지 못하였다.

文字화된 醫學書籍으로 지금까지 傳해져 오면서 韓醫學 理論의 根幹이 되고 있는 《內經》은 大略 戰國時代에서 부터 秦漢에 걸친 時期에 걸쳐 完成이 되어 졌다. 이로부터 韓醫學은 각 分野에 걸쳐 發展을 거듭하여 各 醫家들마다 나뉠대로 獨特한 理論을 이루게 되었고, 그 特徵에 따라 여러 流派로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그 思想의 根據들은 모두 《內經》에 두고 있다.<sup>2)</sup>

《內經》에서 派生된 여러 가지 理論중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은 “辨證論治”의 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辨證論治는 현재 韓醫學의 疾病治療의 基本原則이며, 또한 韓醫學術上의 主要한 特點이기도 하다. 이른바 辨證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1) 裘沛然外1人,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3-7.

2) 王琦外 4名, 素問今釋,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1. p.1.

이란, 곧 疾病의 虛, 實, 寒, 熱과 臟, 腑, 氣, 血 등의 病變의 性質과 部位를 밝히는 것이고 論治라는 것은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根據하여 治療原則을 확정하는 것이다.<sup>3)</sup>

歷史적으로 考察을 해본다면 《內經》時代에는 이러한 原則의 初步만이 形成되었을 뿐이어서, 當時에는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대한 認識이 아직 確實히 整理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內經》에서는 治療方法이 주로 鍼灸였기 때문에 方藥의 運用에 이러한 原則을 어떻게 適用시키느냐 하는데 대한 確實한 言及이 없었다. 東漢末에 이르러, 張仲景의 《傷寒雜病論》(以下 《傷寒論》으로 簡稱)이 나오면서 비로소 진정한 辨證論治의 基礎가 닦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傷寒論》은 辨證의 성질에 대하여 寒熱虛實만을 強調하고, 病變의 部位에 대하여는 表裏만을 強調하였을 뿐 許多한 症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들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대하여는 자세한 言及이 없었다.<sup>4)</sup>

宋代에 이르러 朱肱, 許叔微 등이 《傷寒論》을 다시 整理하는 過程에서 이러한 原則이 겨우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許氏는 仲景傷寒이 三陰三陽으로 分證한 것에 反하여 病情을 分析하고 治療原則을 決定하는 關鍵은 陰陽, 表裏, 寒熱, 虛實에 있다고 主張하였다. 아울러, 同時代의 錢乙은 《內經》의 五臟五行의 理論에 根據하여 자기의 經驗을 합쳐서 五臟을 중심으로한 小兒科 辨證方法을 開發해 내었다.<sup>5)</sup>

그리고, 醫學의 다른 分野들 처럼 金·元 時代에 이르러 “辨證論治”의 原則 또한 劃期的인 發展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대한 認識도 점점 자세해지고 각종 症狀에 대한 이해도 점차 發展하게 되었으며, 處方, 用藥에 있어서도 이러한 原則에 立脚하여 같은 理論體系로 끌어 들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張元素는 疾病의 症候를 臟腑의 寒熱虛實로써 分析, 歸納하고자 하여 “臟腑寒熱虛實”이라는 辨證의 體系를 세워서 明·清代에 이러한 原則이 確立되고 普遍的으로 強調하게 되는데에 중요한 役割을 하였다. 이로부터, 辨證의 體系는 孫一奎, 樓英, 張介賓 등의 醫家들을 통하여 많은 發展을 이루었으니,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따라 細分化되어서 韓醫學의 特徵인 理論으로 發展하게 되었다.<sup>6)7)</sup>

明末·清初의 有名한 醫家中의 한 사람인 陳士鐸은 이러한 原則의 發展에 重要

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78. p.306.

4) 洪元植, 上揭書, pp.306-307.

5) 洪元植, 上揭書, pp.163-170.

6) 尹暢烈, 金元時代醫學의 學術의 特徵, 慶熙大學校大學院, 1983. pp.50-51.

7) 金容辰, 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 大田大學校大學院, 1990. p.21.

한 役割을 했던 醫家이다. 그 時代에는 醫學이 考證學의 影響을 받아 醫學經典에 本來 面目을 研究하여 金元 以來의 各家의 學說에서 벗어나 往聖의 心法을 探究하고자 하는 傾向이 있었으며, 傷寒과 溫病에 관한 論諍이나 經方과 時方에 대한 論諍 等, 各 流派間의 論諍이 活潑하여 醫學發展이 크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앞에서 歷史的 考察을 해본 “辨證論治”의 原則도 이 時代에 確立되게 되었다. 아울러 그 時代는 醫學의 發展이 이루어지는데 必然的인 社會背景이 作用하였는데, 우선은 淸의 統治手段에 依하여 벼슬길이 막힌 明代의 士大夫들 中에 淸에 대한 怨望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嚴格한 法網 아래 反抗할 도리가 없어 出家, 醫學, 敎育, 隱居 等の 方法을 取한 人士들이 많았으며, 康熙(1661-1722年), 雍正(1722-1735年), 乾隆年間(1735-1795年)에 걸친 約 134年間의 全盛時期에 漢人의 學者들을 優待하여 政治的인 일에 關與시키지는 않는 대신 國家的인 編纂事業에 몰두하게 한 것 등의 여러 가지 原因들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陳士鐸도 이 當時의 醫家로서 일찌기 儒學을 工夫하여 벼슬에 나가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醫學의 研究에 몰두하였으며 그에 따라 나름대로 獨特한 理論을 創出하여 많은 醫書를 著述하였다. 특히 그는 《辨證錄》, 《石室秘錄》 등의 著書를 통하여 “辨證論治”의 原則에 立脚한 독특한 醫學的 體系을 이루었으며, 治療에 있어서는 溫補를 重視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韓醫學의 “辨證論治”와 “溫補學派”에 대한 研究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實在로 그의 生涯나 學術的인 成就에 대해서는 體系的으로 研究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 방대한 그의 著書들 中에 우리나라에는 《石室秘錄》, 《辨證錄》, 《洞天奧旨》만이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올바른 研究를 할 수 없었으며, 그의 著書 中에 岐伯, 張仲景 等에게서 직접 醫學을 傳受받았다는 非唯物論的인 점들 때문에 現代 中國 醫學界의 높은 評價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만큼 깊은 研究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9)</sup>

이에 著者는 7種에 達하는 現存하는 그의 著書 中에 考察 可能한 6種에 대하여 研究를 試圖하였고, 그에 따라 몇 가지 特徵的인 그의 學術思想을 發見할 수 있었기에 臨床的으로나 理論的으로 有用할 것으로 思料되어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8) 洪元植, 上揭書, pp.288-309.

9)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9.

## II. 本 論

### 1. 陳士鐸의 生涯

陳士鐸은 清代의 醫家로 字는 敬之이고 號는 遠公이며 別號는 朱華子이다. 自號는 大雅堂主人이라고 하며, 或은 蓮公(遠公의 誤字로 思料된다.)이라고도 한다. 山陰(지금의 浙江省 紹興市)人으로 어릴 때부터 儒學을 工夫하여 여러 번 科擧를 보았으나 合格하지 못하고, 뒤에 京師(서울)로 進出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뜻대로 하지 못하고, 마침내 醫學을 하는데 專念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道家的인 特色을 질게 띠게 되었는데 康熙 26年(西紀 1687年)에 燕市(지금의 北京)에 잠시 머물러 高人을 만나 醫理를 傳受받아 돌아와서 《石室秘錄》 4卷을 編纂하여, 治法 128種을 羅列하였다. 그중에 “霸治法”은 大渴, 大吐, 大瀉를 治療하는 것으로 “吸治法”은 產後 胎盤不下를 治療하는 것으로 매우 優秀한 治法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0)</sup> 그곳에 列擧하고 있는 處方들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지만, 모두들 神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하여 사람들로 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또, 《辨證錄》 14卷이 있는데 뒤에 《脈訣闡微》(일명《鬼眞君脈訣》)라는 책이 附錄으로 있다. 이 책은 辨證과 辨脈에 자세하여 臨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書籍이며 또, 後人들에 의해서 篇次를 달리하여 出版된 版本들이 많아서 《辨證泳鑒》, 《辨證奇聞》등의 異名이 있다. 康熙 32年(1693年)에 다시 燕市를 찾아 갔는데, 瘡瘍患者에게 鍼刀를 즐겨 使用하고 方藥을 즐겨 쓰지 않는 것을 보고 《洞天奧旨》(異名은 《外科秘錄》) 16卷을 編纂하였는데 內治法으로 外科疾患을 治療하는 方法을 說明하였다 (1694年). 그리고, 《本草新編》 5卷이 現存한다고 하는데 1687年에 撰한 것으로 藥性を 考證하여 歸經과 主治를 陰, 陽, 水, 火로 나누어 詳述하였다. 이밖에, 《辨證玉函》 4卷과 《外經微言》이 現存한다.<sup>11)</sup>

祖父에게서 물려 받은 醫學의 秘本과 古醫書를 널리 工夫하여 奇異한 病을 많이 治療하였는데, 患者의 謝禮는 받지 않았으며, 일찌기 말하기를 “習醫救一人은 不若救一世也오 救一世는 不若救萬世也니라.”하여 醫書를 編纂하여 後世에 도움이 되기를 求하였다.<sup>12)</sup>

그가 태어난 年代와 死亡한 年代는 確實히 考證할 수 없지만, 《辨證錄·凡例》

10) 中國中醫研究院中國醫史文獻研究所主編, 中醫人物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8. p.315.

11) 中國中醫研究院中國醫史文獻研究所註編, 上揭書, p.315.

12) 李雲主編, 中醫人名辭典, 北京, 國際文化出版公社, 1988. p.499.

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鐸年已 過六旬이러니 精神衰愚하여 二師傳鐸之言이 愧難強記리라.”<sup>13)</sup>하였고 《辨證錄·自序》를 통해 二師에게 배운 때가 康熙 26年(1687年)이란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이것을 앞에 기록한 60歲와 비교해 본다면 陳氏는 大略 明 天啓年間(西紀 1621年~1627年)에 生한 것을 알 수가 있고 《嘉慶 山陰縣志》에는 “陳年八十餘卒”이라고 記載되어 있으니, 이와 같다면, 그의 死亡 年度는 淸, 康熙 50年(西紀 1711年) 前後로 推定할 수 있다. 陳氏는 祖業(祖上 代代로 물려 받아온 家業)을 물려 받아 어릴때부터 醫學을 좋아 하였으며, 成年 後에는 근방 名醫들과 醫家의 影響을 받아서 자신의 學文을 키워 나갔으니 《辨證錄·凡例》에는 “壯游五岳하여 每逢異人하니 傳刀圭(藥을 담은 그릇으로 醫學을 象徵하는 말이다.)之書가 頗富라.”<sup>14)</sup>고 記載되어 있다. 理論의 研究만이 아니라 그의 臨床 經驗 또한 매우 豊富하여 奇異한 病을 많이 治療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다. 陳氏가 평생 동안 著述한 책들은 매우 많다. 《乾隆(西紀 1735-1795年)紹興府志》에 記載되어 있는 바로는 《辨證錄》, 《脈訣闡微》, 《石室秘錄》, 《洞天奧旨》, 《本草新編》, 《外經微言》, 《辨證玉函》, 《內經素問詳論》, 《靈樞新編》, 《藏腑精鑿》, 《玉函六氣》, 《新編外科》, 《傷寒四條辨》, 《嬰孺症治》, 《傷風指迷》, 《歷代醫史》, 《濟世新方》, 《瓊笈秘錄》, 《黃庭經註》, 《梅花易數》 등의 書籍이 世上에 알려졌다고 하였다. 아울러, 《辨證錄·跋》에서는 “其書를 總名하여 《洞垣全書》라 하니라.”<sup>15)</sup>하였으니 當代에는 매우 높은 醫名을 떨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嘉慶 8年(西紀 1806年)의 《山陰縣志》에 記載되어 있는 바에 依하면 “陳士鐸은 邑諸生(淸明時期에 各省에서 실시하는 試驗에 통과하여 府, 州, 縣의 學校에 入學한 者를 生員이라고 하였는데 各及의 生員을 通稱하여 諸生이라고 하였다.)으로 治病多奇中이나 醫藥不受人謝리라. 年八十卒하니라.”하였으니 젊었을 때에는 儒學을 工夫하여 初試에까지 合格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生涯가 大略 80餘年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著有《內經素問尙論》, 《靈樞新編》, 《外經微言》, 《本草新編》, 《外科洞天奧旨》, 《傷寒四條辨》, 《嬰孺證治》, 《傷風指迷》, 《歷代醫史》, 《濟世新方》, 《瓊笈秘錄》, 《黃庭經注》, 《梅花易數》等書어늘 惜其所著가 多所淪沒이라.”하여 그의 著作에 대한 內容을 說明하였다. 이것과 《乾隆紹興府志》의 內容을 비교해 보면 《辨證錄》, 《脈訣闡微》, 《石室秘錄》, 《辨證玉函》, 《臟腑精鑿》, 《玉函六氣》, 《新編外科》

13)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6.

14) 陳士鐸, 上揭書, p.15.

15) 陳士鐸, 上揭書, p.849.

16) 陳士鐸, 上揭書, pp.887-888.

等이 不足한데 그 理由는 考察할 수 없다. 그의 著作中에 現存하는 것은 《石室秘錄》，《辨證錄》，《本草新編》，《洞天奧旨》，《脈訣闡微》，《辨證玉函》，《外經微言》뿐이다.<sup>17)</sup>

《洞天奧旨》의 跋文中에는 그의 曾孫子인 陳鳳輝가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曾祖遠公은 自少習業以數奇(命運不佳)하여 屢試나 輒蹶이러라. 已而出游京師 하나 復不得志오 遂究心于醫學焉이라. 一日深獨坐어늘 忽有二老者가 扣扉而進일새 衣冠整肅하고 所與談이 皆青囊之術이어나 情意가 眞切하고 指示가 詳明하여 盤桓兩月余라. 臨別時에 謂公曰 ‘子可出而救世矣니라.’ 하고 言訖不見하니 公始識其爲仙子也니라. 由是로 閉戶著書하니 闡發醫理가 二十餘種이라. 所著 《素》，《靈》，《本草》，《傷寒》，《六氣》，《外經微言》，《石室秘錄》，《辨證錄》，《臟腑精鑿》，《脈訣闡微》，《辨證玉函》 等書가 付梓(印刷)行世 已歷有年所矣니라. 第前所刊者가 俱系內科而外科不與焉이러니 ……”<sup>18)</sup>이라고 하여 陳氏의 生涯에 대한 簡略한 說明을 하고 있다. 陳鳳輝는 陳氏의 著書에 대한 校訂을 통하여 曾祖父의 學文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功을 세웠다. 이 跋文을 본다면 그가 애초에는 벼슬에 뜻을 두고 儒學을 工夫하였으나 후에 醫學을 工夫할 때에는 道敎的인 色彩를 질게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陳氏의 一生에 대한 確실한 歷史的 資料가 不足하기 때문에 그의 生涯를 研究하는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의 生涯에 대한 여러가지 論難이 일고 있으니, 그중에서 그의 著書인 《辨證錄》，《石室秘錄》，《洞天奧旨》 등의 내용과 明末의 名醫인 傅山의 《傅青主女科》，《傅青主男科》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고 심지어는 文章까지 똑같은 것까지 있어서, 中國 學界에서는 이에 대한 論爭이 계속되고 있다.<sup>19)</sup> 심지어는 그의 著書인 《辨證錄》，《石室秘錄》，《洞天奧旨》를 原作者가 실은 傅山이라고까지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sup>20)</sup> 傅山도 또한 明末·清初의 文人 兼 醫家로서 明이 망한 후에 隱居하여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醫書를 널리 工夫하여 醫術이 高明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清士이자 훌륭한 醫家로 尊敬을 받았다.<sup>21)</sup> 따라서, 그의 醫術이 어떤 식으로든 陳氏에게 影響을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陳氏의 著書들이 傅氏의 것이란 主張들은 그의 다른 書籍인 《辨證玉函》，《外經微言》，《本草新編》 등의 책들이 出版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이전의 主張들로 信

17) 陳士鏞,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p.3.

18) 陳士鏞, 上揭書, p.236.

19) 李雲主編, 上揭書, p.499.

2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p.85, p.299.

2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p.85.

憑성이 없다고 思料된다. 아울러, 그런 主張이 있었던 시기에는 《辨證錄》의 다른 版本인 《辨證奇門》이 淸·道光年間(宣宗時 年號) 太醫院 院使인 錢松의 著述로 誤導되면서 陳氏의 學術的인 業績을 더더욱 깎아 내리게 되었고, 그 또한 上記의 主張들이 일게 된 또 다른 要因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陳氏와 傅氏의 醫學的인 關係에 대한 判斷은 다시 全面的인 書籍의 考察이 있는 후에 行해져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陳氏는 著述을 할 때에 古人들에게 託名을 하여 “岐伯”, “張仲景”, “鬼眞君”, “華公” 등이 직접 자신에게 醫術을 전해주었다고 하였는데 이런 점들은 現代 中國의 醫家들에게 “當其棄糟粕하고 取其精華하여 不苛責古人하라.”<sup>22)</sup>는 主張을 일게 하여, 그의 學術的인 理論은 높이 評價하였지만 그의 生涯에 대한 研究는 많이 行해지지 못하게 한 結果를 낳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런 方式의 著述形式에 대하여 다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가 말한 것이 事實인지의 與否는 考證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그의 著書에 대한 價値를 賦與하기 위해서 거짓을 그의 책에 적어놓은 것만은 아니라고 思料된다. 그 根據를 들자면 그는 《辨證錄》의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客이 又笑曰 君辨理奇矣라. 已足顯著作之才어늘 奚必託仙以銜奇耶아하거늘 鐸은 尼山之弟子也라. 敢輕言著作乎아. 聞二先生教하니 亦述之而已矣오 何必諱其非仙哉리오.”<sup>23)</sup>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託名을 한 理由의 하나로 “述而不作”하는 儒敎的인 謙虛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 이러한 著述方式은 韓醫學의 基本原典인 《黃帝內經》에도 있었던 것을 볼 때 단순히 “糟粕”으로만 置簿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思料된다.

## 2. 陳士鐸의 著書와 學術的 特徵

陳氏가 평생 동안 著述한 책들은 매우 많다. 《乾隆(西紀1735-1795年)紹興府志》에 記載되어 있는 바로는 《辨證錄》, 《脈訣闡微》, 《石室秘錄》, 《洞天奧旨》, 《本草新編》, 《外經微言》, 《辨證玉函》, 《內經素問詳論》, 《靈樞新編》, 《藏腑精鑿》, 《玉函六氣》, 《新編外科》, 《傷寒四條辨》, 《嬰孺症治》, 《傷風指迷》, 《歷代醫史》, 《濟世新方》, 《瓊笈秘錄》, 《黃庭經註》, 《梅花易數》 등의 書籍이 世上에 알려졌다고 하였다.

嘉慶 8年(西紀 1806年)의 《山陰縣志》에 記載되어 있는 바에 依하면 “著有

22) 張燦瑛, 《石室秘錄》의 學術特色, 中醫雜誌, 1986. 第3期, p.54.

23)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4.

《內經素問尙論》，《靈樞新編》，《外經微言》，《本草新編》，《外科洞天奧旨》，《傷寒四條辨》，《嬰孺證治》，《傷風指迷》，《歷代醫史》，《濟世新方》，《瓊芟秘錄》，《黃庭經注》，《梅花易數》等書어늘 惜其所著가 多所淪沒이라.”하여 그의 著作에 대한 內容을 說明하였다. 이것과 《乾隆紹興府志》의 內容을 비교해 보면 《辨證錄》，《脈訣闡微》，《石室秘錄》，《辨證玉函》，《臟腑精鑿》，《玉函六氣》，《新編外科》 등이 不足한데 그 理由는 考察할 수 없다. 그의 著作 中에 現存하는 것은 《石室秘錄》，《辨證錄》，《本草新編》，《洞天奧旨》，《脈訣闡微》，《辨證玉函》，《外經微言》뿐이다.<sup>24)</sup>

### 1) 辨證錄

#### ① 構成 및 略史

本書는 淸나라 陳士鐸의 著述이다. 全書는 14卷(附錄 《脈訣闡微》 1卷) 126門으로 傷寒, 雜病, 瘡瘍,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의 各科에 대하여 776가지 證狀을 記載하고 있다. 이른바 “辨證”이라는 것은 “辨病體之異同하여 證藥味之攻補니라.”는 것으로 病을 鑑別하고 用藥을 할 때에 이런 原則을 應用하는 것을 의미한다. 書中에는 《靈樞》，《素問》 및, 仲景의 學說에 立脚하여 論說한 境遇가 많으며, 陰陽, 五行, 六經의 理致를 運用하여 症狀을 分析하고 病理機轉을 說明하였으며 또, 그에 따라서 立法하며, 處方을 하며, 方義를 說明하였다. 아울러, 每 1介 病症에 한 가지 主治方 外에 다시 한 가지 備用方을 갖추어 놓아서 서로 參照하여 보도록 하였다. 本書의 內容은 비교적 醫案과 類似하여 그 中에 實在 臨床과 密接한 內容들이 많지만, 理法方藥이 透徹하여 理論書로서도 손색이 없다. 《辨證錄》은 《傷寒辨證錄》，《臨證醫案傷寒辨證錄》，《辨證奇聞》，《辨證永鑿》 등의 異名이 있다.<sup>25)</sup>

書中에 陰陽互根에 대한 內容을 運用한 것과 五行生克의 理致에 따라 證候를 分析한 것은 비교적 獨創의이며 優秀하다. 하지만, 이 책은 岐伯, 仲景에게서 친히 口述로 傳授를 받았다고 하였고, 醫理를 說明하는데 있어서 간혹 君臣의 關係나, 옛날의 人倫 關係에 따라 비유를 하여 說明한 境遇가 있으며, 卷十의 鬼, 狐, 妖, 怪 등이 사람을 迷惑시켜서 病이 들게하는 내용 등의 非唯物論的인 內容들 때문에 現代 中國學界의 높은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臨床的인 價値에도 불구하고 깊은 研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全書를 綜合해보면 비록 症狀에 대한 說明은 자세하였지만, 脈에 대한 說明은 簡略하였다.

24)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p.3.

25) 陳士鐸, 上揭書, p.1, p.887.

《辨證錄》의 成書 時間을 과거에는 모두 西紀 1687年이라고<sup>26)</sup> 하였는데 이때는 즉, 康熙 丁卯年을 이른다. 그 根據는 아마도 陳氏의 自序와 관련이 있는듯 하다. 왜냐하면, 自序中에 “丁卯秋 余客燕市할새 黃菊初放이라 ……”<sup>27)</sup>하여 그 때에 二老를 만나 傳授받은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 때를 《辨證錄》의 成書 時期라고 한다면 그 時期는 康熙 丁卯年인 西紀 1687年이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疑問을 가져 본다면 다른 觀點에서 그 成書 時期를 推定해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즉, 本書의 成書 時期는 아무리 빨라도 1年 뒤인 西紀 1688年(康熙 戊辰年)으로 볼 수 있으니 그 이유는 丁卯秋에 陳氏가 二老를 만났지만 “乃尙論《靈》,《素》諸書하니 辨脈辨證이 多非世間語러라. …… 閱五月別去하니 訓鐸曰 ‘今而後君可出而著書矣리라.’ ……”<sup>28)</sup> 라고 하여 丁卯秋에 陳氏가 二老를 만났지만 그 때는 단지 가르침만을 받는 段階이고 著述을 始作한 것은 아니며 眞正으로 著述을 始作한 것은 “閱五月別居”한 以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著述에 着手한 때는 丁卯年의 다음 해인 康熙 戊辰(西紀 1688年)인 것이다. 그리고, 그 完成 時期는 이 때보다 더 뒤로 볼 수가 있다.<sup>29)</sup> 本書는 비교적 높은 臨床價値를 認定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後世에 校訂하고 새로이 出版을 한 版本들이 많다. 《中醫圖書館聯合目錄》에 실려 있는 것만 해도 20餘種이나 되니 그 대표적인 版本을 보자면 “雍正間刊行本(이는 ‘年希堯序文’을 根據로 推測한 것으로 實在로 이 版本이 있었다고 肯定하기에는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있다.)”, “黃退菴本(乾隆 13年)”, “郭淳章 刊行本(嘉慶 22年), (이는 《百病增補辨證錄》이라고 하여 현재 가장 많이 보이는 版本이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偏次나 《脈訣闡微》의 부록 添加與否등의 些少한 差異만을 보이는 것이었으며 모두 陳氏의 序文과 凡例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版本들이 陳士鐸의 著述이란 것에 대해 異議를 제기하는 이는 없었으며 다만 최근에 원래 傅山의 著述이라는 主張만이 약간 있고 있을 뿐이다.<sup>30)</sup>

그 밖에 陳氏의 책과 동일한 內容으로 淸·道光 3年(1823年) 太醫院 院使로 있던 錢松(錢鏡湖)이 本書를 十卷本으로 再編輯하여 이름을 《辨證奇聞》이라고 바꾼 것이 있는데, 原本보다 이 책이 오히려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또한 陳氏의 學術的인 評價를 깎아내리게 된 한 要因이 되게 되었다. 그 理由는 錢氏가 自序에서 “辨證奇聞 一書가 家藏久矣라. 予深受其益이러니 詳加刪定

2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上揭書, p.73.

27) 陳士鐸, 上揭書, p.13.

28) 陳士鐸, 上揭書, p.13.

29) 陳士鐸, 上揭書, p.889-890.

30) 陳士鐸, 上揭書, pp.890-893.

하여 分爲十卷 ……”<sup>31)</sup>이라고만 하여 原書의 著者를 밝히지 않았고, 相對的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辨證錄》의 著者인 陳士鐸보다는 《辨證奇聞》의 著者로서 錢氏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은 淸·光緒(德宗時) 5年(西紀 1880年) 鍾志高, 周國驥의 序文에 “辨證奇聞 一書는 乃太醫院 錢鏡湖先生 所家藏이니 其原本은 不知出於何人之手니라.”<sup>32)</sup>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辨證奇聞》이란 이름은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辨證錄·白序》에서 “書非銜奇로대 而仍以奇聞名者는 以鐸聞二先生之敎가 不過五閱月이여 數十萬言이 盡記憶無忘하여 述之成帙일새라. 是則可奇者乎인저 豈矜世以銜奇哉리오?”<sup>33)</sup>한 것을 보면 뒤에 나온 版本이야 어떻든 陳氏의 原著는 《辨證奇聞》이었고 錢氏는 바로 이 原本을 갖고 있었다고 思料된다.

그리고, 1988年에 上海의 施洪權이란 사람이 中醫藥學에 관심을 두고 工夫하던 중 陳氏의 書籍에 관심을 가지고 몇 해간을 工夫하여 《辨證奇聞·評注》를 (이하 《評注》라고 簡稱한다.) 刊行하여 出版하였다. 本書는 《辨證奇聞》中에서 200餘가지의 臨床例에다가 評注를 달아서 그 內容을 좀더 깊게 解釋하며 分析하였다. 症狀를 分類하는데 좀더 精確한 面을 求하였고, 病理機轉을 좀더 자세히 糾明하기 위하여 施氏는 再編輯하는 過程에서, 人體臟腑의 特徵에 따라 心, 肝膽, 肺, 脾, 胃, 腎 等の 篇目을 나누어 症狀들을 配置하였고 特定한 臟腑에 配屬시키기 困難한 나머지 病症들은 首部, 虛證, 雜證 等の 篇目을 나누어 配屬을 시켰으니 모두, 8篇이다. 그리고, 卷末에 施氏 本人의 臨床經驗에 依한 醫案 108가지를 附錄으로 收錄하였으며, 또한 方劑索引을 만들어서 찾아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sup>34)</sup>

## ② 學術的 特徵

(가) 《內經》의 理論을 자신의 독특한 견해에 따라 발전시켰다.

(闡揚《靈》, 《素》)<sup>35)</sup>

書中에는 《靈樞》, 《素問》, 仲景諸書를 根據로 論說한 境遇가 많은데, 단순히 그곳에서 나오는 內容들을 좇아서 자신의 理論을 편 것이 아니라 그러한 內容들을 引用하여 자신의 獨特한 見解를 添加하였기 때문에, 辨證用藥에 獨特한 面을 갖추고 있었다.

例를 들면, “冬月傷寒에 身熱三日하고 腹滿白利”하는 證狀에서 그것이 寒에 屬

31) 錢松, 辨證奇聞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

32) 錢松, 上揭書, p.2.

33) 陳士鐸, 上揭書, p.14.

34) 陸鴻元外 1人, 辨證有倉見 評注得要領, 上海中醫藥雜誌, 1992. 第4期, pp.30-31.

35) 陳士鐸, 上揭書, p.10.

하는 것인가(太陰), 熱에 屬하는 것인가(少陽)를 分別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夫太陰之自利는 乃寒極而痛也오 少陽之自利는 乃熱極而痛也니라. 痛同而證實各異하니 此痛은 必須手按之니 按而愈痛是陽證也오 若太陰陰證은 按之而不痛矣니라. 故로 治陽證之法은 仍須和解少陽之邪오 而不可誤治太陰이니라.”하였다. 36) 處方에는 加減柴胡湯(柴胡, 白芍藥, 茯苓, 甘草, 梔子, 陳皮, 當歸, 地殼, 大黃)을 使用하였는데, 이 處方은 和解하는 中에 微攻하였으며 分消시키는 가운데에 약간 補하겠다는 意圖를 갖고 있어서, 火邪는 쉽게 散하게 하면서도 正氣를 傷하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 또, “若以大承氣湯으로 下之면 未免過於推湯이오 若以大柴胡下之면 未免重於分消니라.”37)고 하였는데 즉 일반적인 裏實證이 아니라 少陽의 邪氣가 鬱滯된 것을 原因으로 보았으므로 이같은 論述을 한 것이다. 이는 그가 古方을 독특한 方法으로 運用한 것과, 鑑別診斷과 隨證用藥이 優秀했던 점을 잘 드러내는 例이다.38)

(나) 辨證과 病理의 說明이 독특하다.(辨證候均出新裁)39)

《辨證錄》의 가장 큰 特徵은 醫案과 같은 篇次임에도 不拘하고 各 症候에 대한 辯論이 分明하여 工夫하는 이로 하여금 各 證治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중 男性病에 대한 證治는 臨床的으로 유효한 점이 많아서 中國의 臨床家들 사이에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그의 辨證論治에 대한 理論을 男性病을 중심으로 記述한다.

陳士鐸의 理論中 男性醫學과 관련있는 論述은 《辨證錄》의 “種嗣門”, “陰痿門”, “陽強不倒門” 등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內容을 分析해 보면 주로 性機能障碍, 精子質量低下 등에 대한 內容으로 陽萎, 早泄, 陽強滑精, 精液量少, 精熱, 精稀清冷, 精液挾痰濕, 陰莖細小 等이다. 그는 病因, 病理를 論述하는데 있어서 先天的으로 稟賦받은 것이 厚하지 않은 것과 後天的으로 生理機能에 失調가 있는 것을 들었으며, 各各의 境遇에 論說, 治法, 治方을 附加하여 臨床的으로 應用하는데 有效하게 하였다.

㉑ 補氣血(氣血辨證)

氣血의 盛衰는 男子의 性機能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왜냐하면, 氣가 旺盛하면 陽이 旺盛하고 氣가 衰하면 陽이 衰하기 때문이다. 陳氏는 이에 대하여 “交感之時에 婦人正在興濃而男子先萎하여 陽事不堅하고 精難射遠을 人以爲命門之火衰也라 하나 誰知陽氣之大衰乎아.”40)하였는데 그가 指摘한 陽氣는 “乃五臟之眞氣”(即

36) 陳士鐸, 上揭書, pp.35-36.

37) 陳士鐸, 上揭書, p.36.

38) 陳士鐸, 上揭書, pp.888-889.

39) 陳士鐸, 上揭書, p.15.

元氣)이다. 五臟中에 腎이 元氣의 根이 되고, 脾가 化生의 母가 되니, 그는 “但補脾腎之氣”하면 可하다고 하였다. 使用한 方劑는 “助氣仙丹”(人蔘, 黃芪, 當歸, 茯苓, 白朮, 補骨脂, 杜沖, 山藥), “火龍丹”(人蔘, 白朮, 巴戟, 杜沖, 兔絲子, 麥門冬, 菴蓉, 補骨脂, 遠志, 肉桂, 黃芪, 當歸, 五味子)인데 그 處方은 모두 黃芪, 人蔘, 白朮 등을 大量으로 使用하였고, 다시 山藥, 補骨脂, 巴戟, 菴絲子, 肉菴蓉, 肉桂, 五味子, 杜沖으로 佐輔하게 하여 脾腎을 雙補하게 하였다.<sup>41)</sup>

氣, 血, 精은 異名이면서도 同源으로 서로 도와 가며 資生한다. 여기에 대하여 陳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男子有面色萎黃하여 不能生子者는 乃血少之故也라. …… 夫血氣足而精亦足이오 血氣全而精亦全이라. …… 惟是血不能速生이니 必補其氣라. 盖血少者는 由于氣衰일새라.”<sup>42)</sup> 處方은 當歸補血湯, 滋血繩振丸 等に 黃芪, 當歸, 熟地黃을 重用하여 補氣하여 養血하고 益血하여 生精하고자 하였다.

#### ㊤ 調臟腑(臟腑辨證)

臟腑의 有餘와 不足은 性機能과 精子の 質量에 影響을 미치는데 不足한 者는 虛한 것이니 先天的으로 稟賦받은 것이 不足한 것이고 後天的으로 機能이 衰弱한 것이다. 有餘한 者는 實이지만 實하다고 하여 꼭 健壯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氣滯나 痰鬱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 (a) 腎과의 關係

陳氏는 “男子有泄精之時에 止有一二點之精하여 …… 誰知是天分之薄乎아.”라는 論說을 하였는데 이는 곧 腎虛로 인한 陽萎證을 이른다. 處方에는 生髓育麟丹(人蔘, 山茱萸, 熟地, 桑椹, 鹿茸, 龜板膠, 魚鱔, 兔絲子, 山藥, 當歸, 麥門冬, 五味子, 肉菴蓉, 人胞, 栢子仁, 杞子), 添精詞續丸(人蔘, 鹿角膠, 龜板膠, 山藥, 杞子, 山茱萸, 麥門冬, 兔絲子, 菴蓉, 熟地, 魚鱔, 炒巴戟, 五味子, 栢子仁, 肉桂)을 使用하였다. 이 두 處方은 厚味로써 添精시키는 藥品이 많은데, “服三月하면 精多且陽亦堅而孕이라.”하였다.<sup>43)</sup>

##### (b) 肝과의 關係

肝은 筋을 主하고 그 經脈이 陰器를 循環하며 陰器는 “筋之餘”이며 “宗筋之會”로 이름 지어진다. 陳氏는 陽物(陰莖)의 大小와 肝氣의 盛衰는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였는데, “人之陽物脩偉者는 因其肝氣之有餘일새라. 陽物細小者는 由于肝氣之不足일새라.”하였고, “欲使小者增大인댄 要非補肝不可라.”하였으며, 同時에 心腎을 兼補해야 한다고 하여 “腎爲肝之母오 心爲肝之子니 補肝而不補腎

40) 陳士鐸, 上揭書, p.659.

41) 陳士鐸, 上揭書, pp.659-660.

42) 陳士鐸, 上揭書, pp.666-667.

43) 陳士鐸, 上揭書, pp.660-661.

이면 肝之氣가 無所生이오 補肝而不補心이면 則肝之氣가 有所耗리니 皆不能助肝以伸其筋이오 助筋以壯其勢也니라. 故로 三經同補라야 始獲其驗也니라.” 하였다. 處方은 奪天丹, 展陽神丹을 써서 補肝, 益腎, 養心하는 治法을 取하였다.<sup>44)</sup>

#### (c) 心肝과의 關係

木氣는 通暢함을 主로하여 곧으며 굽힐 줄을 모르는데, 木과 火가 相通해야만 이 君火가 비로소 動하게 되며, 心肝이 相습할 수 있어서 비로소 房帷의 즐거움을 다하면서 楚烈한 徵兆를 抑制할 수 있다. 陳氏는 “男子有懷抱素鬱而不舉者는 …… 誰知是心肝二氣之滯乎아.” 하여 肝氣鬱結로 인하여 君火가 用事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境遇를 들었고 계속하여 “外境遇之坎坷 (①길이 울퉁불퉁하다. ②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 하여 值人倫之乖戾하여 心欲怡悅而不能하고 肝欲通直而不得 …… 志意不遂하면 則陽氣不舒라. 陽氣者는 腎中之眞火也니 腎中眞火는 原奉令于心이라. …… 心火抑鬱하면 則腎火雖旺而不能應하리니 有似弱而實非弱也니라.” 하여 病理機轉을 說明하였다. 治法은 《素問·六元正紀大論篇第七十一》의 “木鬱達之, 火鬱發之”<sup>45)</sup>의 方法을 써서 肝氣를 順理시켜서 木으로 하여금 本來의 喜條達하는 性質을 이루게 하며, 心의 抑鬱을 舒暢시켜서 志意로 하여금 舒泄하게 하여 陽氣를 開達시키는 方法을 썼다. 處方으로는 宜志湯, 志優丹, 適興丸 등을 써서 心肝의 鬱氣를 宣達시키며 養血을 兼하였고, 心腎不交를 治療하며 疏肝解鬱을 主治法으로 쓰면서 補養을 약간 兼하였다.<sup>46)</sup>

#### (d) 胃, 腎과의 關係

精은 生之本으로 純精한 것을 貴하게 여기고 雜스러운 境遇에는 妊娠하기가 어렵다. 陳氏는 “男子身體는 肥大하면 必多痰涎이라. 往往不能生子하니라.” 하였는데 “多痰之人은 飲食雖化하여 爲精이나 而濕多難化니 遂乘精氣入腎之時하여 亦同群共入하니 腎欲避濕이나 而不能也니라. 濕既入腎하니 是精은 非純粹之精이라. 安得育麟哉리오.” 하여 痰濕이 純精에 섞이면 子息을 生하지 못하는 境遇가 있음을 記載하고 있다. 治療는 除痰으로 主治를 삼고 益精하는 것으로 佐하게 하였다. 陳氏는 여기에 대해 “蓋痰之生은 本于腎氣之寒이나 痰之多是 由于胃氣之弱이라. …… 故로 治痰에는 必當治腎胃二經이니 健其胃氣而痰可化오 補其腎氣而痰可消矣니라.” 하여 腎과 胃를 함께 治療할 것을 주장하였다. 處方은 宜男化育丹을 使用하였는데, 健脾胃하고 化痰濕하는 藥이 10中에 7에 該當하고 補腎하는 藥이 10中에 3에 該當한다. 中氣와 腎氣가 健康하면 痰濕이 腎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自然히 精이 純粹해지니 妊娠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sup>47)</sup>

44) 陳士鐸, 上揭書, pp.668-669.

45) 任應秋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서울, 一中社, 1991. p.229.

46) 陳士鐸, 上揭書, pp.667-668.

## ㉔ 調和陰陽水火(陰陽水火辨證)

生子는 氣血의 盛衰와 臟腑機能의 強弱外에 陰陽水火의 協調平衡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 陰陽의 不調和는 精子의 質量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後天의 精은 脾胃의 水穀이 化하는 바이지만 脾胃는 반드시 命門火의 蒸騰作用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生生不息”하는 功을 이룰 수있는 것이다. 命門의 火가 衰하면 土를 生할 수 없으니 脾胃의 氣는 갈수록 더욱 衰微해진다. “欲其氣旺而固하고 精厚而不薄인댄 烏可得乎아.”하고 論述의 첫머리를 이끌면서 “精薄精冷하면 雖亦能交接이나 然半途而廢커나 或臨門卽泄하니라.” 하였으며 治法으로는 “補先天命門之火하고 更補後天脾胃之土하라.” 하여 土氣를 旺盛하게 하고 火를 衰하지 않게 하여 “氣溫精厚”하게 하라고 하였다. 處方으로는 火土既濟丹, 旺火丹을 쓴다. 이 處方의 構成은 黃芪, 人蔘, 白朮, 山藥, 茯苓 등의 補土하는 藥에 菟絲子, 巴戟, 肉桂, 山菜肉, 五味子, 補骨脂, 肉豆蔻 등 益火하는 藥品을 添加하여 술아래 少火가 항상 따뜻하게 덥혀 주어 坤土가 능히 化生하는 것이 그치지 않게 하듯이 하였다.<sup>48)</sup>

精은 腎에 貯藏되어 있으며 心이 主管한다. 男子의 性機能에 強弱은 命門相火와 關聯이 있으니, 陳氏는 이에 대하여 “凡入房久戰不衰는 乃相火充其力也일새라.” 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調節하는 權勢는 心官의 火에 있으니 “心火旺 則相火聽令于君火오 心火衰則君火가 反爲相火所移니 心欲謹守其精이나 相火는 已暗送精于精門之外하니라.” 하였다. 그 症狀으로 “一到婦女之門卽便泄精이오 且泄精甚薄하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不特君火衰極이오 相火亦未常盛也니라.” 하여 治療하는데 있어서도 “補心火之不足이오 不可瀉相火之有餘니 瀉相火則君火益衰니라.” 하였다. 處方으로는 濟火延嗣丹, 補天育麟丹을 提示하여 君相의 火를 溫養할 것을 要求하였다. 이것은 그의 溫補學派的인 特徵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相火妄動에 일반적으로 ‘滋陰降火’의 治法만을 使用하는 것을 볼때 獨特하면서도 매우 타당한 理論으로 思料된다.<sup>49)</sup>

陰陽이 調和되면 萬物이 生하고 胎孕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陰陽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妊娠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陳氏는 이에 대하여 “過寒則陰凝而胎胞不納이오 過熱則陽亢而胎胞難受니라.” 하였고, “泄精之時에 寒氣逼人하면 自難得子하니라.” 하였고, “泄精之時에 如熱湯淺入子宮하면 精熱自難存養하니라.” 하였다. 治療에 있어서 寒한 者는 益火溫陽시키고 熱한 者는 滋水益陰하게 하였다. 益火

47) 陳士鐸, 上揭書, pp.665-666.

48) 陳士鐸, 上揭書, p.568.

49) 陳士鐸, 上揭書, pp.663-664.

溫陽에는 溫精毓子丹과 勝寒延嗣丹을 써서 心包와 命門을 함께 溫하게 하면 春陽이 人體를 돌아 精을 따뜻하게 덥히면서 妊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滋水益陰에는 平火丹, 鎮陽丸을 써서 甘涼滋陰하여 “補陰而不過寒之虞하고 瀉火而有生陰之妙하니라.”한 것을 다하였다.<sup>50)</sup>

陰陽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精의 質量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性機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心腎이 한시라도 不交하면, 水火既濟를 이루어 陰平陽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勞心楚思하는 사람은 그의 陰分을 消耗하며 人房에서 그의 精을 다 枯竭시켜서 水火相濟를 이룰 수 없게 한다. 陳氏는 이에 대하여 “于是에 心君이 失權하니 腎水無力하고 命門之火與心包之火가 反相合而不相離하니 肝中龍雷之火가 亦起而相應하고 三焦之火도 亦且附和以助其炎上之勢하니라. 火盡上升하여 陽無所寄하니 勢不得不仍歸于下하니라. 下又難藏하여 因走于宗筋陰器之間하여 陽乃作強而不可倒矣니라.”하였고 “然이나 一與女合하면 又立時泄精이오 精泄之後에 隨又興起하니 人以爲命門之火라하니 誰知陰衰之極乎아.”하였고 “無陽則陰脫而精泄하고 無陰則陽孤而始舉하니라.”하여 陰陽의 不調和에 의한 水火不交의 病理機轉을 說明하였다. 陽強症에 滑泄을 兼하게 되면 매우 危急한 症勢인데, 陳氏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見解를 가졌다. “尙有一線之陰在면 則陰必可續而可生이오 陰이 旣生矣면 則陽不爲孤陽이라. 陰日旺而陽日平하리라.”하여 治療에 補陰을 慎重히 實施한다면 아주 拋棄할 정도로 심한 症狀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妄用寒涼하여 折之면 則反激動其龍雷之怒하여 陰不入于陽中하고 陽反離乎陰之外하니라.”하여 반드시 益陰시키는 藥을 大量으로 使用할 것을 主張하였다. 心腎을 相濟시키면서 陰中陽藥을 약간 섞어서 陽을 이끌어 陰分에 들어가게 하여 太剛한 氣運으로 하여금 平坦해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平陽湯이란 滋陰시키는 藥中에 山茱萸를 加入하였으며, 引火兩安湯이란 滋陰劑中에도 黃連, 肉桂로 佐하였으니 處方은 비록 다르지만 그 目的은 하나인 것이다.<sup>51)</sup>

《辨證錄》에서 男性病에 대한 辨證論治에 있어서, 그 項目들은 비록 陽萎早泄, 陽強滑泄, 精少, 精熱, 痰濕, 氣鬱, 相火妄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을 試圖하였지만, 모두 氣血, 臟腑, 陰陽의 不調和로 因하여 病이 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臟腑中에는 心, 肝, 脾, 腎의 關係가 가장 重要하니 男性不育을 治療할 때는 腎의 機能을 고려하여야 하며, 腎의 病理機轉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他 藏器의 機能도 綜合的으로 分析해야 한다. 陳氏의 處方들을 考察해 보면 그는

50) 陳士鐸, 上揭書, pp.662-663.

51) 陳士鐸, 上揭書, pp.605-606.

“種詞門”, “陰痿門”, “陽強不倒門”中에 모두 32首의 處方을 記載하였는데, 그중에 人蔘, 白朮을 21方에서 使用하였고 當歸, 山藥을 15方에서 黃芪를 14方에서 熟地黃을 13方에서 使用하였다. 이는 즉 男性病을 治療하고자 할 때에는 氣, 血, 精을 모두 考慮하여 治療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氣旺而精始生하나니 氣旺則精旺하고 精旺則 火既有根하여 自能生生于不已하니라.” 하였다.<sup>52)</sup>

③ 《評注》는 陳氏의 學說중 難解한 部分이나 臨床的으로 區別이 힘든 部分에 대한 補充說明을 하고 있다. (辨論之處 或多未備 尤望同人之教鐸也)<sup>53)</sup>

《評注》는 陳氏의 學說을 理解하고 臨床에 應用할 때에 좋은 指鍼書가 된다. 이는 곧 陳氏가 《辨證錄·凡例》에서 말한 “辨論之處가 或多未備하니 尤望同人之教鐸也라.”하는 희망에 잘 부합한 것이라고 思料된다. 이에 《評注》의 註解方式을 記述하여 앞으로 《辨證錄》의 研究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辨證奇聞》의 原文 內容은 內科, 外科, 小兒科, 婦人科 等の 各科 疾病에 症治에 대하여 五行의 生克理論을 가지고 症狀, 病因, 立法 處方 및 方劑의 配伍에 대하여 說明한 것이다. 비록, 《靈樞》, 《素問》, 仲景의 學說을 根據로 하기는 하였지만 隨證用藥이 매우 獨特하기 때문에 古人의 治療原則이나 處方에만 求愛 받는 弊端이 없이, 각 處方마다 獨特한 特徵을 갖고 있다. 全書를 살펴보면 陳氏는 每 症狀의 아래에 자세하게 陰陽互根의 理致와 五行生克의 理致를 갖고 論述을 하였기 때문에 읽는 자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책에 빠져 들게 하는 面이 있었다. 그렇지만, 讀者들이 理解하기에 어려운 部分들도 있다. 施氏는 評注를 달 때에 이런 곳에 이르러서는 억지로 解釋을 부치려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辨證論治의 原則에 맞추어서 病原을 探究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內容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理法方藥에 대하여 說明을 함에 있어서 不足하지 않은 것이다.

《評注·肺臟篇》중의 咳嗽門의 內容을 例로 들어보면, “人有風寒已散이나 而痰氣未清하여 仍然咳嗽氣逆하여 索引腰背하고 俯仰不利하니 人皆謂必須治痰之爲亟矣라. 然而治痰而痰愈多하고 嗽愈急하며 咳愈重者는 何也오? 盖治痰之標而不治痰之本耳니라.”하여 證例를 提示하였으며, “痰之標는 本于肺오 痰之本은 在于腎이 어늘 不治腎而治肺하니 此痰之所以不能去며 而咳嗽之所以不能愈也니라.”하여 病理機轉을 說明하였다. 그런데, 이 아래에 陳氏는 腎氣부터 始作하여 胃津까지를 言及하였고, 腎水로부터 始作하여 心火에까지 說明을 追加하였다. 論說이 많아지면 질수록 讀者들은 要點을 잡지 못하고 暈매는 境遇가 많으니 陳氏가 “凡例”에서 말하였듯이 “各門의 辨證이 專請五行生克之理라. 生中有克하고 克中有生하여

52) 陸惠銘, 陳士鐸論治男科病經驗, 上海中醫藥雜誌, 1989. 第12期, pp.39-41.

53) 陳士鐸, 上揭書, p.16.

經權常變하러 顛倒紛紜이라. 貴人善讀之耳니라.”<sup>54)</sup>한 內容과 一致하는 것인데, 施氏는 《評注》에서 “子母兩富湯加味方”(熟地 二兩, 麥門冬 二兩, 甘草 一錢, 柴胡 一錢, 白芍 五錢 水煎服)의 方義에 대하여 객관적인 分析을 加하여 本證의 病理 機轉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久咳는 不特肺氣虛損이오 而腎水亦枯槁오 水不涵木하여 肝木이 恣橫하여 反侮肺金而咳不能止니라.”하여 肺腎間의 五行相生關係를 說明하였고, 아울러 肝木이 反侮하는 相克의 關係도 言及하였다. 이는 혹 混亂에 빠지기 쉬운 讀者들로 하여금 陳氏의 意圖가 무엇인지를 간략한 說明으로 이끌어 준 代表的인 例이니 “辨論之處, 或有未備”라고 한 內容을 補充한 代表的인 例라고 思料된다.<sup>55)</sup>

또, 《評注·雜病篇》에 疰夏病의 境遇를 例로 들어 본다면, 原文에 “人有時值夏令에 便覺身體昏倦하고 四肢無力하고 朝朝想睡하고 全無精神하며 脚酸腿軟한대 人以爲疰夏之病이나 雖知腎水之乏乎아?”라고 症狀를 提示하며 “治法은 必須健脾開胃爲主라. 健脾開胃하면 則所用飲食이 自然變化精微하여 以生腎水하고 又得補腎之藥하여 以蒸動脾腎之氣하면 則水土不相克而相生하리니 何慮疰夏之病哉리오?”라고 病理機轉을 敘述하였다. 處方으로는 勝夏丹을 使用하였으니 白朮, 茯苓, 陳皮, 人蔘, 五味子, 熟地, 山茱萸, 神麩, 白芥子, 山藥, 芡實, 酸棗仁炒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에 대하여 施氏는 《評注》에서 “如無濕熱現象而夏天嗜臥倦怠하며 懶于言語者는 不妨試用이라.”하여 이 處方의 實際使用시 나타나는 問題點에 대하여 評價를 내렸다. <sup>56)</sup>

以上을 綜合해 보면, 《評注》는 《辨證錄》의 說明중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讀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要點을 분명히 하는 注를 달았으며, 處方의 활용에 있어서 올 수 있는 臨床的인 問題點에 대해서 일반적인 辨證論治의 原則에 입각하여 評價를 내렸기 때문에 《辨證錄》의 內容을 이해하고 臨床에 응용하는데 유용한 註釋書라고 思料된다.

그리고,《評注》는 理論과 臨床實際의 結合을 試圖하여 理論의 探究에만 置重하는 方法을 取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例는 施氏의 醫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中에 하나를 例를 들어보면 “自幼患哮喘일새 好發于秋冬季節이오 常于夜間突然發作이라. 口脣紫暗하고 面色少華오 舌淡苔薄하고 脈小滑이라.”하는 症狀의 患者가 있었는데 辨證하기를 “肺失清肅, 腎少攝納”이라고 보아 “肺腎同治”하는 것을 治法으로 삼아서 “麻杏甘石湯加味方(麻杏甘石湯에 瀉白散과 黛蛤散을 加味한

54) 陳士鐸, 上揭書, p.15.

55) 施洪權編著, 辨證奇聞評注,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1989. pp.86-87.

56) 施洪權編著, 上揭書, pp.307-308.

것”으로 “清肅上源”하고 다시 附子湯(附子是 熟附塊를 使用)으로 “攝納下元”하였다. 本例는 正氣가 虛하고 邪氣가 實하므로 마땅히 標本을 함께 治療하고자 하여 “清上溫下”하고자 한 것으로 溫涼을 並行하면서도 어긋나는 點이 없었기 때문에 辨證도 確實하며 效果도 빠를 수 있었다. 陳氏도 “喘證”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補腎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니 例를들어 “夫喘證은 多是傷腎이라. 多嗽之人은 未有不傷腎者이니 以肺金이 不能生腎水而腎自傷也일새라.”한 것과 “傷肺者는 易爲功이나 傷腎者는 難爲功이라.”한 說明들은 모두 臨床經驗에서 얻어진 產物로 볼 수 있다. 다만 陳氏는 辨證에 있어서 症狀의 鑑別에 重點을 두었으며 舌診과 脈診의 診察에 있어서는 不足하였다. 그런데, 上記의 醫案의 症狀例를 본다면 舌診과 脈診에 依하여 附子를 使用할 수 있는 結論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施氏의 醫案과 같은 境遇는 脈診과 舌診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니 陳氏의 原文과 서로 參照하여 본다면 臨床에 本書를 應用하는데 매우 좋은 方法이 될 것으로 史料된다.<sup>57)</sup>

## 2) 石室秘錄

### ① 構成 및 略史

《石室秘錄》은 모두 4卷으로 되어 있으며 128가지 治法이 실려있고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 등 100餘種의 疾病에 대한 診斷과 治療를 說明하였고, 古今의 名方과 陳氏가 스스로 創案한 定方이 500餘種이 記載되어 있다.<sup>58)</sup> 1卷에서 3卷의 後半部까지는 여러가지 症狀에 대한 治法을 提示하였으며, (例: 正醫, 反醫 …… 音治, 神治) 그에 대한 辨證施治 및 處方을 적어 놓았고, 3卷의 後半部부터 4卷의 初半部까지 ‘傷寒相舌秘法篇’으로 論五行, 論臟腑, 論陰陽, 論晝夜, 論四時, 論氣色, 論脈訣 등 17가지 내용에 대한 論述을 記載하고 4卷의 後半部에서는 小兒科의 症治를 ‘岐天師兒科治法’ 등 8介 文段으로 나누어 記載하고 있다. 全書를 通하여 陳氏의 岐白, 張仲景에게 假託하는 著述 方法이 餘他 다른 著書보다 더 確實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序文에서도 “漢長沙守張璠職拜廣德眞人是 題於玉河之南하노라.”하였고, “無上天眞大帝眞君岐伯은 書於玉河之南하노라.”<sup>59)</sup> 하였으며, 本文中에도 “天師曰”, “岐伯曰”이라고 하여 岐伯과 張璠의 이름을 빌어 論述을 해 나갔다.

### ② 學術的 特徵

(가) 臨床經驗을 土臺로 《內經》의 理論을 發展시켜 나갔다.

57) 施洪權編著, 上揭書, p.363.

58) 張燦理, 上揭書, p.53.

59) 陳士鏗, 石室秘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p.1-2.

本書의 128法은 ‘正醫法’, ‘反醫法’, ‘全治法’, ‘偏治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內經》의 理論을 비교적 正確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內經》의 ‘上病治下’, ‘下病治上’, ‘中病傍取’ 등의 原則을 가지고 本書에서는 ‘偏治法’중 方藥을 運用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原則을 실제로 運用하였다. 즉, “偏治者는 乃一偏之治法이니 譬如人病心痛에 不治心而偏治肝하고 譬如病在上而偏治下하고 譬如病在右而偏治左하고 譬如病在四肢手足而偏治其腹心也니라.”<sup>60)</sup>고 하여 《內經》의 理論에 立脚하여 臨床의인 發展을 시켰으며 아울러, 心病에 心包를 治療하는 法, 上焦火를 治療하는데 아래로 腎을 治療하는 法, 左肝病을 治療하는데 右肺를 治療하는 法, 厥逆症이 四肢에 있을 때 心腹을 治療하는 法 등을 具體적으로 提示하였다.

臟腑生理 方面에서도 많은 예를 볼수 있으니, 예를 들면 ‘臟治法’ 中에 “臟有五나 治法은 有三이라. 脾肺를 同一治하며 腎肝을 同一治하며 心腎을 同一治하니라.”<sup>61)</sup>한 것은 臟氣의 相關理論에 대한 獨特한 理論으로 脾肺는 氣를 主하는 臟器로서 相關性이 있고, 心腎은 水火交濟의 의미로서 相關性이 있는 것이며 肝腎을 同治한 것은 腎水가 肝木을 滋潤하지 못한 경우에 肝木이 抑鬱되어 不舒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內經》의 理論에 근거를 하여 자신의 理論을 독특하게 披瀝한 좋은 例가 된다.

(나) 辨證立方을 하는데 獨創의인 見解를 드러내었다.

‘反醫法’ 中에 狂病의 證治를 論한 것을 보면 “此皆正氣虛而邪氣犯之也라. 似宜治邪가 爲是나 然而邪之所湊에는 其氣必虛라 不治其虛면 安問其餘리오? 此所以急宜固其正氣而少佐以祛痰祛邪之藥爲妙나 如發狂見鬼者는 乃虛也라. 方用 人蔘一兩, 白朮一兩, 半夏三錢, 天南星三錢, 附子一錢이니 水煎灌之면 狂自定矣니라.”<sup>62)</sup> 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狂證의 原因(實)에 대한 治法이 아닌, 獨創의인 새로운 治法(補虛)를 提示하였으니 補氣藥을 주로 사용하고 附子를 佐藥으로 使用하여 “引補心消痰之劑하여 直入心中則氣尤易補而痰尤易消하니라.”하였다. 中國의 臨床家들 사이에 이 法을 이용하여 癲癇狂病의 患者들중에서 體力이 弱하면서 病勢가 緩慢한 者들에게 좋은 效果를 이루고 있는 者가 많다고 보고하는 이가 있다.<sup>63)</sup> 또, 肺癰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處方을 提示하기를 元蔘 二兩, 麥門冬 三兩, 生甘草 五錢, 金銀花 十兩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中國의 여러 臨床家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報告되고 있다.<sup>64)</sup>

60) 陳士鐸, 上揭書, p.25.

61) 陳士鐸, 上揭書, p.114.

62) 陳士鐸, 上揭書, p.5.

63) 張燦珮, 上揭書, P.53.

用藥面に 있어서도 本書는 獨特한 見解를 갖추고 있으니 예를 들면 白芥子를 應用하는데 있어서 ‘治癩方’, ‘治夜間發熱方’, ‘治風秘方’ 등에 모두 보이는데, 그 立方한 意義를 考察해보면 모두 祛痰通絡하는 것에서 着眼을 한 것이니, 무릇 頑麻, 腫硬 等の 奇異한 疾病들의 原因을 모두 痰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다.

(대) 用藥의 分量이 比較的 크다.

書中에 陳氏가 스스로 立方한 藥들을 보면 藥味の 가짓 수는 작으면서 各各의 藥量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藥의 가짓 수가 작으면 藥의 效能을 抑制하는 힘을 줄일 수 있고, 藥量이 크면 한 곳으로만 가서 目標하는 바의 治療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다고 認識되고 있다. 예를 들면 ‘正醫法’中에서 肺癰을 治療하는 處方中에 金銀花를 8兩이나 使用하여 그 清熱解毒하는 힘을 強力하게 하여 肺金으로 하여금 清肅함을 얻어 癰膿이 自除하도록 하였고, 血痢를 治療하는 處方 中에는 當歸를 1兩까지 使用하였으니, “調血則膿血自愈라.”는 原則과 符合한다. “逆醫法”中에 喘證을 治療하는 處方 中에는 人蔘을 1兩이나 使用하고, 麥門冬, 五味子, 牛膝, 胡桃, 生姜汁을 配合하였으니, “喘病은 雖是腎虛나 早産에는 肺虛하여 不能生腎水오 腎水가 不能速生하니 必須補氣以生之니라.”한 것과 符合한다. 그러므로, 人蔘을 重用하여 그 힘을 極大化한 것이다. 또, 腰痛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白朮 3兩, 芡實 2兩, 薏苡仁 3兩을 使用하였는데 이 處方은 祛濕하는 힘을 늘린 것으로 寒濕腰痛을 治療하는 處方이다. 또, 第 4卷의 “癰疽病無名腫毒”에서는 金銀花 4兩, 蒲公英 1兩, 當歸 3兩, 元蔘 1兩으로 構成된 處方을 提示하였는데 이 또한 中國의 많은 臨床家들에게 效果를 認定받고 있다.<sup>65)</sup>

以上을 綜合해 보면 本書의 用藥法은 確實한 辨證에 立脚한 單刀直入的인 治法을 強調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위에 예를 든 藥味の 가짓 수는 작지만 藥量은 많은 處方들을 보면 陳氏의 用藥法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處方들은 여러가지 危重한 症狀을 治療하는데 有效할 것으로 思料되므로 앞으로 臨床的으로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라) 여러가지 獨特한 治療方法을 提示하였다.

本書의 治法은 藥物療法이 爲主가 되었지만 綜合的인 治法도 多用되었다. 예를 들면 第 1卷의 ‘逆治法’中에 喉病의 雙蛾 症勢가 있는데 少陰의 火가 上升하여 喉門이 腫痛하여 茶水를 한 방울도 삼키지 못하는 者에게 寒涼한 藥만을 쓰면 病이 더욱 심해지는 境遇에 “急須刺其少商之穴하여 出血少許하면 喉門이 必有一線之路開矣니라.”<sup>66)</sup>하였고 이때에 다시 附子, 熟地, 山茱萸, 麥門冬 등을 煎服한

64) 張燦瑛, 上揭書, P.53.

65) 張燦瑛, 上揭書, P.53.

다고 하였다. 이는 우선 鍼刺法으로 標를 治하고 後에 湯藥으로 그 本을 治療하는 方法인 것이다. 또, 第 1卷에 ‘碎治法’中에 “割瘤接舌之法”이 記載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麻醉藥方 1首’와 ‘外敷藥方’ 등이 실려 있다. 이는 當時의 手術法의 一種으로 思料된다. 이외에 第 2卷의 ‘摩治法’中에는 手足疼痛, 頸項強直 등을 治療하는데 按摩法을 소개하였으며, ‘浴治法’中에는 疥癬 등의 病을 治療하는데 洗浴法을 使用하는 方法 등이 紹介되어 있다. 위에 提示한 內容들중 ‘碎治法’, ‘浴治法’ 등에 대한 자세한 內容들은 앞으로 더 많은 研究를 거친 後에 臨床의인 應用 與否를 考慮해 보아야 한다고 思料된다.

(甲) 氣血의 關係를 獨特한 觀點에서 把握하였다.

‘論氣血’篇中에 氣血의 治療에 있어서 先後緩急에 대한 重要的 論述을 하였는데, “氣는 無形也오, 血은 有形也라. 人知治血必須理氣하여 使無形으로 生有形하나니 殊不知 治氣는 必須理血하여 使有形으로 生無形也니라. 但無形이 生有形은 每在于倉皇急危之日而有形生無形은 要在于平常安適之時니라. 人見用氣分之藥하면 速于見功하나 用血分之藥하면 難于秦效하여 遂信無形能生有形而疑有形能生無形하나니 不知氣血은 原迭相生長이오 但止有緩急之殊耳니라.”<sup>67)</sup>하여 一般的인 氣血에 대한 認識을 바꾸었다. 즉, 일반적인 治療에 있어서 氣血을 잘 區分하지 않고 先理氣 後調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病의 緩急에 따라 先後를 나누어 治療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全書를 통틀어 나타나는 辨證施治의 思想과도 一致하니 例를 들어 癲狂을 治療하는데에 參朮을 重用하여 扶正祛邪해야 한다는 內容이나, 喉蛾의 假熱을 治療함에 附子, 熟地 등을 使用하여 引火歸原해야 한다는 內容이나, 吐血, 血崩에 우선 參芪를 使用하고 後에 當歸, 芍藥을 使用하여야 한다는 法이 모두 철저한 辨證에 根據해서 疾病의 緩急標本을 나누어 施治의 先後를 定한 것이 된다.<sup>68)</sup>

(甲) 藏象學說.(六臟七腑說)

五臟六腑에 대한 學說은 모두 《內經》에 根源을 두고 있다. 즉, 五臟은 心, 肝, 脾, 肺, 腎을 가리키고, 六腑는 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를 가리키고, 여기에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등의 奇恒之腑를 設定하였으니 이것이 韓醫學의 藏象學說에 基礎理論을 이루어 왔다. 그런데, 陳氏는 이러한 理論的 基礎위에 그 자신의 獨特한 研究 끝에 ‘六臟七腑學說’을 開發하여 臟中에 胞胎를 臟으로 보았고 腑中에는 膻中을 보았다. 그의 遺作 중에 《石室秘錄》에서 약간의 理論을

66) 陳士鐸, 上揭書, p.9.

67) 陳士鐸, 上揭書, p.223.

68) 張燦瑛, 上揭書, pp.53-54.

나타내었으며, 그의 晩年 著作인 《外經微言》中の ‘臟腑闡微論’, ‘包絡配腑篇’, ‘膽腑命名篇’, ‘媾精受妊篇’의 文章中에서 자세하게 論述하였다. 七腑의 內容은 《外經微言·臟腑闡微論》에서는 “腑七而名六은 何也오? 岐伯이 曰 大小腸, 膀胱, 膽, 胃, 三焦, 包絡은 此 腑也니라.” 하였고, “臟止五乎잇가? 臟心六乎잇가? 岐伯이 曰 心肝脾肺腎은 五行之正也라. 故로 名五臟이오 胞胎는 非五行之正也니라. 雖臟이나 不以臟名之니라.” 하였다.<sup>69)</sup> 《石室秘錄·論臟腑》에서는 “雷眞君이 曰 五臟六腑는 人所知也나 然而五臟不止五오 六腑不止六은 人未之知也니라. 心肝脾肺腎은 此五臟也오 五臟之外에 各絡亦爲臟이라. 雖包胞胎係婦人所有나 然이나 男子도 未嘗無包胎之脈이라. 其脈이 上係於心하고 下連於腎하니 此脈은 乃通上通下하여 爲心腎接續之關하니 人無此脈이면 則水火不能相濟니 下病則玉門不關이오 上症則怔忡不寧矣니라. 若婦人尙病은 與男子로 同이나 下病은 則不能受妊이니 是生生之機가 屬陰而藏於陽이라. 是別爲一臟也나 然이나 旣爲一臟이면 何以不列入五臟之中이리오. 因五臟은 分五行이로대 而包胞는 居水火之兩岐하여 不便分配라. 所以止言五臟而不言六臟也니라. 或言胞胎가 旣是一臟이오 不列入五臟之中이면 何以於古治病者가 不治包胎하여 竟得無恙아. 是包胎는 亦可有可無之脈이니 其非五臟之可比일세라하고 而不知非也라. 蓋包胎가 不列入五臟하여 亦因其兩岐하여 故病在上하면 則治心而心氣自通於包胎之上이오 病在下하면 則治腎而腎氣自通於包胎之下라. 故로 不必更列爲一臟而非包胎之不爲臟也니라. 或又疑女子有包胎以懷妊하여 以包胎爲一臟이 固立而男子亦曰有包胎라하니 其誰信之리오하니 不知男子之有包胎니 論脈之經絡而非包之有無也니라. 於心之膈膜間에 有一系가 下連於兩腎之間하니 與婦人으로 無異也니라. 惟婦人은 下大而上細하여 房子上下俱細耳오 婦人은 下有口而男子下無口하여 爲別이니라. 此脈은 男女入房에 其氣下行而婦人之脈은 其口가 大張하여 男子泄精에 直射其口而包胎之口가 始閉而受妊矣니라. 若男子精不能射어나 或女子氣不下行커나 或痰塞커나 或火燒커나 或水冷하면 其日俱不敢開오 斷不能受妊이니라. 此包胎之爲一臟이 甚重也니라. 至小腸大腸膀胱膽胃三焦는 此六腑也라. 六腑外更有臆中하여 亦一腑也니 臆中卽心包絡이라. 代君火司令者也라. 臆中與心은 原爲一臟一腑라. 兩相表行이어늘 今獨稱心而遺臆中은 非臆中不可爲府尊이오 心爲君火니 不得不抑臆中爲相火也니라. 或曰 千古에 不治臆中하고 何以治心而皆效잇가. 不知心與臆中이 爲表裏하여 表病則裏亦病이라. 故로 治裡而表自愈니 況臆中爲脾胃之母니 土非火不生이오 心火는 不動이니 必得相火之往來以生之而後胃氣能入이오 脾氣能出也니라. 臆中旣爲脾胃母어늘 謂不足當一腑之位乎아. 此臆中之爲一腑니 人當留心이어다.”<sup>70)</sup>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六臟七腑의 學說

69) 李今垣, 《外經微言》의 作者, 成書年代, 中華醫史雜誌, 1992. 第22卷, 第1期, pp.30-31.

에 대하여 여러가지 證據를 提示하면서 論述을 하였다. 즉, 胞胎는 水火를 交濟시켜주는 “非五臟之正臟”이고 膈中은 心君火의 짝이 되는 相火로서 실제로 脾胃의 母가 되는 중요한 腑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臨床에 實在로 應用하는 것은 볼 수가 없으니 그 자세한 論述은 《外經微言》에 記載되어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sup>71)</sup>

(사) 特殊服藥法 九種

陳氏의 《石室秘錄》中에는 理法方藥이 奇異한 것들이 많은데, 특히 服藥法이 獨特하다. 여기에서는 그의 獨特한 服藥法들을 分析하여 9種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㉑ 立服法

陳氏는 厥症의 治法을 論할 때 “令人將病人하여 抱而立之케하고 令一人으로 將藥與飲케하여 候其下口久之하여 然後에抱臥하라.”하였고 腰痛을 治療할 때 “此方은 雖妙나 非立飲이면 不能達于腎宮이라.” 하였으니 “蓋厥症은 原是熱病이라. 熱深則厥亦深이라. 尙令其臥而服藥이면 則藥到胃나 一遇火氣沸騰衝擊而不相入하고 反致吐出者가 比比일새라.”하여 厥症이 있을 때 立服해야만 하는 理由를 說明하였고 “腎宮은 于坐臥之時에는 水穀이 不能直達하니 使之站立이라야 水穀滋味가 始能入之니라.”하여 腎으로 들어가는 藥, 즉 下焦에까지 보내고자 하는 藥들은 반드시 일어서서 服用해야 한다고 하였다.<sup>72)</sup>

㉒ 活動四肢後服法

陳氏는 手足麻木의 治法을 論할 때 “法當用竹筒一介하여 去其中間之節하고 以圓木一根을 穿入之하고 以圓木兩頭를 縛在卓脚下하고 病人脚心(足心)으로 先踏竹筒而圓轉之하여 如踏車者하라. 一日不計其數而踏之然後에 以湯藥으로 與之라.”하였고 “兩手之動은 又不如足이라. 必使兩人으로 反轉病人之手在背後하여 以槌(방망이 추)轉極(두드릴추)之하니 極至兩臂酸麻而後以湯藥으로 與之可愈니라.”하였고 “于二症에 尤當使人抱起坐丁하여 以一人有力者로 將其手足延(늘이다. 연기하다.)拳하여 回者를 不已니라.”하였다. 陳氏는 이러한 服藥法에 대하여 “蓋此等病은 必濕氣侵之하여 始成偏廢하여 久而不仁之症이 成也니라. 成則雙足自然麻木이니 乘其尙有可動之機而活動之니라. 從來足必動而治면 血始活이니 因濕侵之하여 遂不能伸縮如意니 所以必使之動而後에 可以藥愈也니라. 否則徒飲湯藥耳니라.”하였다.<sup>73)74)</sup>

70) 陳士鐸, 上揭書, pp.214-215.

71) 李今坦, 上揭書, PP.30-31.

72) 陳士鐸, 上揭書, PP.135-138.

73) 賀福田 外2人, 陳士鐸特殊服藥法九種, 四川中醫, 1993. 第1期, p.10.

74) 陳士鐸, 上揭書, pp.168-169.

上記의 두 가지 服藥法을 考察해 보면 藥을 가지고 引經하는 것 이외에 運動等 身體의 動作에 따라서도 藥의 作用部位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最大의 藥效를 꾀하기 위하여서는 藥이 作用하는 部位에 따라 動作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內容을 敘述한 것이다. 이 方法은 現代 臨床家들이 藥物治療와 並行하여 物理療法等 여러 가지 治療方法을 兼하여 施行하는 것과 一定 程度 相應하는 面이다. 앞으로도 韓方療法의 研究에 藥物의 治療效果를 增大시킬 수 있는 方法을 研究하고자 할때 陳氏의 이런 服藥法들은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 ㊸ 醉服法

頭痛을 治療하는데 陳氏는 “煮酒隨量飲하여 微醉而愈니라.” 하였고 腦痛을 治療할 때에 “水三碗을 煎湯하고 入前酒酌量飲之하여 一醉而愈니라. 量好者는 再飲之以酒니 必以醉爲度니라.” 하였고, 兩肩臂痛을 治療할 때는 “水六碗을 煎二沸하여 取汁하여 入黃酒內하여 酌量飲이니 一醉爲度니라.” 하였다. 그 이유로는 “黃酒一味는 無經不達이라. 引其藥味而直入病中也니라.” 하였으니, 약간 醉하게 되어 놓는다면 正氣와 藥味가 病所에 傳하게 되어 病邪를 쉽게 除去할 수 있다고 하였다. 75)

#### ㊹ 含服法

雙乳蛾를 治療할 때 陳氏는 “雙乳蛾의 陰症에 用附子 一梅를 以鹽一合으로 水煮透케하여 令其口含一片하면 而火勢立止니라. 然後에 以六味湯大劑를 飲之니라.” 하였는데 雙幼兒 陰症은 腎陰이 虧虛한대 虛火가 上炎하여 이루어진 病이다. 鹽은 鹹寒하여 腎에 들어가니 그것으로 附子를 삶아서 虛火를 下降시키고자 한 것이니 “引火歸原”의 功을 다한 것이다. 입에 머금고 있으면 上浮한 虛火를 治療할 뿐만 아니라 上浮한 虛火를 끌고서 腎宮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 후에 六味湯을 大量으로 服用하면 水가 充足하여져서 火가 스스로 潛息할 것이다. 76)77)

上記의 두 服藥法은 일정한 食品을 가지고 藥의 治療效果를 增大시키고자 한 것으로 方劑안에서도 君臣佐使의 配伍가 있어서 藥의 效果를 增進시키고자 하는 面들은 있지만 服藥時에 그 效果를 增大시킬 수 있는 補助食品을 研究하는 것도 매우 重要한 일이라고 思料된다. 아울러, 陳氏의 이러한 服藥法은 그러한 研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 ㊺ 早服法

75) 陳士鐸, 上揭書, p.15.

76) 賀福田外2人, 上揭書, p.10.

77) 陳士鐸, 上揭書, p.9.

中風을 治療하는 境遇에 回生神丹을 服用하게 하였는데 “早晨服二碗即臥하여 上以棉被蓋之하여 令極熱하여 汗出如雨하여 任其口乎大熱이오 不可輕去其被하여 任其白干이니라.”하였고, 臃脹이 몇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는 자를 治療할 때에 “消鼓至神湯”을 服用하는데 새벽에 一碗을 服用하게 하였다. 白癩風과 紫癩風을 治療할 때에 “米湯을 每日早晨送下三錢하여 一料服之면 卽愈하니라.”하였다.<sup>78)</sup>

새벽은 太陽이 비로소 일어나고 陽氣가 陰을 떠나서 外에 達하게 되니 營衛의 氣가 經脈에 行하여 人體의 防禦力이 增強되는 時期이다. 이 때에 服藥을 하면 능히 營衛의 氣의 運行을 促進시킬 수 있으며, 正氣가 藥味를 이끌고 經脈中에서 行하기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陳氏는 祛邪시키고자 하는 治法을 施行할 때에 太陽의 始升하는 勢力을 빌려서 藥味들을 病所에 直達하게 하고자 하였다.

#### ㊸ 晚服法

癆蟲을 治療할 때에 “每日臨睡空腹에 白濃水로 送下五錢하여 服半料하면 腹中 似蟲非蟲이 盡行便出하니라.”<sup>79)</sup>고 하였으니 이런 服藥法은 癆蟲의 境遇는 蟲들은 대개가 夜間에 發作하는 境遇가 많은데 治癆하는 藥을 晚服하면 蟲들이 그것을 飲食으로 알고 다 받아 먹게 되어 죽게 된다고 여겼다. 이를 考察한다면 癆蟲의 症狀는 陰虛에 屬하는 것이 많으며, 陰에 해당하는 時間에 陰을 補하고자 한 그의 理論은 실로 奧妙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痞塊에 있어서는 “堅在于腹中한대 若徒攻其堅하면 必致腹中不和而損胃氣리니 法當用和解之中에 飲以治之면 則堅之性이 可緩而堅之形이 可化오 堅之氣가 可散오 堅之血이 可消니라.”하면서 이 또한 晚服할 것을 主張하였다.<sup>80)81)</sup>

上記의 두 가지 服用法을 考察해 보면 邪가 陽分이나 外部에 있어서 陽氣의 升發力을 빌어서 治療하고자 할 境遇에는 早服法을 試圖하였으며, 邪가 陰分이나 內部 腹中에 있는 境遇에는 陰氣의 降收하는 힘을 빌어서 治療하고자 한 것으로, 理致上 常道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卓越한 應用을 보여주는 것으로 臨床의 有效할 것으로 思料된다.

#### ㊹ 間服法

癆病을 治療하고자 할 때 殺蟲神丹 및 地黃湯을 服用하게 하였는데 그는 地黃湯을 說明할 때에 “每日服前湯後에 遂下五錢하니 一日二次하라.”고 하였고 “前方은 可服五劑하고 卽當服地黃湯一劑하고 再服前湯五劑하고 又服地黃湯一劑라.”하였다. 이는 몇 가지 藥物들을 교대로 服用하여 治療의 效果를 增進시키고자 한

78) 陳士鐸, 上揭書, pp.195-196.

79) 陳士鐸, 上揭書, p.35.

80) 賀福田外2人, 上揭書, pp.10-11.

81) 陳士鐸, 上揭書, p.159.

것으로, 病이 膏肓과 骨髓에 있는 癆症의 境遇에 陳氏는 朝服方과 晚服方을 提示하였는데, 대개 癆症은 陰虛陽亢의 病理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陰陽을 俱治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思料된다. 따라서, 陳氏는 虛勞를 治療할 때 身體의 氣血을 두루 治療하기 위해서 두 가지 藥을 교대로 服用하게 하는 方法을 取하였으니, 殺蟲神丹은 殺蟲滋腎養肺를 主治로 삼고 있고 六味湯은 大補腎陰하는 方劑이므로, 이 두 處方을 交代로 使用하면 人體氣血이 充足하여져서 正氣가 旺盛하게 되고, 殺蟲力도 強大한 藥을 服用하므로, 補虛로 因하여 祛邪力을 弱화시키거나, 祛邪함으로 해서 精氣를 損傷시키는 弊端을 일으키지 않게 하였다.

病邪가 膏肓과 骨髓에 入하면 癆瘵病을 이루는 境遇가 많은데 이에 따라 陰虛의 病理機轉이 많게 된다. 낮에는 陽氣가 盛하므로 원래 陰虛陽亢한 患者가 이 때를 만나면 매우 위험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補陰方을 早服하게 하여 陽氣가 浮越하지 않고 歸原하게 하여야 하고 夜間에는 陽氣가 陰分에 들어가기 때문에 陰分이 充足하면 陽氣가 쉽게 들어와서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니 晚服方을 服用하게 하여 大補陰精시키게 하였다.<sup>82)</sup>

上記의 服用法은 陰陽을 함께 治療하고자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方法으로 위에서 언급한 早服法, 晚服法과 함께 隨時用事하게 되면 藥效를 더욱 증강시켜 效果的인 治療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思料 된다.

#### ㊸ 天未明時服

晝間에 惡寒發熱의 症狀을 治療할 때 陳氏는 補正祛邪湯을 服用하게 하였는데, 그 服用法을 “必須從天微明而先載之니라.”하였고 “日間邪氣作수는 斯正氣之衰니라.”고 病理를 說明하여,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에는 一陽이 始生하여 外에 달하고자 할 때이다. 이 때에 補氣扶正藥을 服用함으로써 正氣를 補하고 陽氣의 升發을 도와서 陽氣로 하여금 自旺하게 하여 祛邪하면 惡寒發熱이 그치게 된다.<sup>83)</sup>

#### ㊸ 黃昏前服法

夜間에 惡寒發熱이 있는 境遇에 補陰僻邪湯을 服用하게 하였는데 “必須在黃昏之前에 以此藥으로 先與之하면 則陰氣固而邪不敢入이니라.”하였다.

대개 夜間에 惡寒發熱을 일으키면 陰氣가 甚하여 陽氣가 入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에 補陰僻邪丹을 服用하여 滋補陰精을 하면 陽氣가 入할 곳을 찾을 수 있고 陰陽이 和하게 되니 이에 夜間에 惡寒發熱하게 되는 症狀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sup>84)85)</sup>

82) 賀福田外2人, 上揭書, p.11.

83) 陳士鐸, 上揭書, pp.109-110.

84) 賀福田外2人, 上揭書, p.11.

上記의 두 服藥法을 考察해 보면 이는 病이 장차 發하려 할 때에 病의 原因을 파악하여 미리 病根을 扼는 治法으로 陰陽의 不調和로 因하여 有時而發하는 疾患에 有用한 效果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 3) 洞天奧旨

#### ① 構成 및 略史

《洞天奧旨》은 《外科秘錄》이라고도 하는데 陳士鐸의 外科 專門書籍이다. 全書는 16卷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經絡圖’를 실어 놓았고, 第 1卷부터 “總論”을 4卷에 걸쳐서 실어 놓았으며, 그 다음 9卷에는 各論 部分으로 諸證의 說明이 있고, 마지막 3卷에는 奇方들을 실어 놓았다. 學術的인 特徵은 外科의 瘡瘍에 대하여 辨證이 매우 緻密하고, 治法이 매우 神妙하며 그 곳에 실려 있는 處方들이 臨床的으로 많은 認定을 받고 있어서, 清代의 外科를 發展시키는데 큰 貢獻을 한 書籍으로 認定받고 있다는 것이다. 本書는 현재 乾隆 55年 版本을 基礎로 1991年에 柳長華氏의 點校를 걸쳐 出版된 것이 있다.<sup>85)</sup>

《洞天奧旨》은 全書가 모두 16卷으로 나뉘어 있는데, 第 1卷부터 第 4卷까지는 瘡瘍의 病因, 病理機轉 및 治療 原則 등에 대해서 論述한 것으로 共히 37論으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瘡瘍의 標本과 辨脈, 陰陽, 善惡, 經絡 등의 發生機轉에 대해서 자세히 論述하였고, 瘡瘍의 診斷과 治療中에 注意해야 할 많은 問題點에 대해서도 分析을 加하였다. 第 5卷부터 第 13卷까지는 疾病을 나누어 說明하였는데, 外科의 各種 瘡瘍의 病因, 病理機轉, 臨床症狀, 診斷, 治療, 處方用藥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그 안에 있는 病證의 숫자는 143種이다. 第 14卷부터 第 16卷까지는 奇方을 上, 中, 下 3部分으로 羅列하였고, 各 處方을 說明하는데 天師, 仲景, 雷公傳이나, 世傳, 祖傳 등의 處方의 出處를 꼭 밝혀 놓았다.

上述한 各項의 內容 中에 《內經》, 《肘後方》, 《千金方》 등의 書籍外에 《外科精要》, 《瘡瘍全書》, 《外科精義》, 《篩氏醫案》, 《證治準繩》, 《景岳全書》 등의 書籍에서 引用한 部分이 많다.

《洞天奧旨》은 陳氏가 晩年에 著述한 책인데, 康熙 33年 自序에서 말하기를 “癸亥冬에 再游燕市한대 所遇者가 皆瘡瘍壞症이러라. 鐸이 摯方療之어늘 病家懷疑하여 棄而不用하고 反信任世醫刀鍼割裂하니 變出非常(副作用)이라. 復以瑣細輕劑救援이나 卒至死亡不悟라. 鐸痛憫久之하여 因再著茲編하니 名曰 《洞天奧旨》라. 談醫用藥에 無非本諸洞天之傳也니라.”하였는데 本文中에 나오는 癸亥年을 考察해 보면 康熙 22年으로 《辨證錄》의 序中에서 말한 “丁卯(康熙 26年)秋에 遇

85) 陳士鐸, 上揭書, pp.110-111.

86)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p.1.

岐伯天師于燕市……”라고 한 것과 앞뒤가 맞지가 않으니 여기에서 말한 癸亥年은 아마도 癸酉年의 誤記라고 思料된다.

本書가 처음으로 出版된 年代는 그의 曾孫인 陳鳳輝가 跋文을 쓰면서 校訂 出版을 하였던 乾隆 55年으로 推定된다. 陳鳳輝는 跋文中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는데 “曾祖遠公의 所著 《素》, 《靈》, 《本草》, 《傷寒》, 《六氣》, 《外經微言》, 《石室秘錄》, 《辨證錄》, 《臟腑精鑿》, 《脈訣闡微》, 《辨證玉函》 等書가 付梓行世하니 已歷有年所矣라. 第前所刊者는 係內科, 而外科不與焉이라. ……故로 特付諸劊劊하여 以公海內하니라. 時乾隆庚戌花朝에 曾孫鳳輝謹跋하노라.” 하였으며 그 以前에 出版되었다는 記錄은 다른 곳에는 모두 보이지 않으며, 단지 《中醫圖書聯合目錄》에서만 “康熙三十三年 甲戌古越에 大雅堂原刻本”이란 內容이 있는데 이것은 陳氏의 自序에 依據하여 記錄한 內容 같으나, 이때부터 出版이 되었다는 것은 信憑性이 不足하다고 본다. 위의 內容들을 볼때 本書가 처음으로 出版이 된 年代는 乾隆 55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sup>87)</sup>

## ② 學術的인 特徵

陳氏는 外科的인 治療를 하는데 있어서 注意 하여야 할 점을 ‘凡例’의 후반부에서 간단히 披瀝하고 있다. 이에 그 內容을 아래에 소개한다.

(가) “外科에 專尙刀鍼하니 用之當則免養癰潰敗之害나 然이나 天師는 惟主內消하고 不喜外刺니라. 故로 編中方法이 內消居多니 實遵師訓이오 非怯用利器也니라.” 이는 外科의 治療方法에 刀鍼을 사용하여 施術하는 것보다는 藥을 가지고 內消할 것을 主張한 것이다.

(나) “外科灸法이 素稱神奇나 然이나 自頸以上은 萬不可輕灸니 灸之多致死亡이니라. 愿我同人컨대 各宜遵守하여 勿謂‘艾炷細小하니 即可灸也라.’하라.” 이는 外科 瘡瘍의 初期에 灸法을 多用하는 일반적인 世態를 指摘하며 灸法도 注意하여 施行해야 한다는 主張을 한 것이다.

(다) “瘡瘍은 成于火毒이라. 自宜用攻瀉之藥이나 然而一味로 攻瀉則氣血大傷하여 未潰者는 火毒難于消火요 已潰者는 肌肉艱于斂收니라. 必用補爲主하고 而佐之攻瀉之味면 則轉易奏功이니라. 故로 天師所傳之方은 補多于攻이오 卽鄙人所采之方도 亦攻輕于補云이라.” 이는 그의 溫補를 중요시하는 特徵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예로서 外科 瘡瘍을 治療하는데 있어서 ‘攻瀉法’보다는 ‘補托法’을 쓰기를 主張한 것이다.

(라) “外科瘡瘍은 貴在急治라. 盖正氣未傷하면 邪氣易散이니 天師與諸眞所傳이 皆急治良方也니라. 萬勿因循畏怯하여 反致敗壞하라.” 이는 正氣가 未傷

87) 陳士鐸, 上揭書, pp.2-3.

한 初期에 治療할 것을 主張한 것이다.

(마) “瘡瘍外發은 皆由臟腑內虛也라. 故로 各門 經絡에 備載無遺하여 亦便人察外知內也니라.” 이는 《洞天奧旨》가 瘡瘍의 原因이 되는 臟腑의 診斷에 편리하도록 著述되었다는 내용이다.

(바) “癰疽疔毒은 非疥癬可比也니라. 世人于初起之時에 慢不經心하면 往往變出非常하리니 甚可畏也니라. 故로 無論小瘡細癰하고 俱當慎重治之하라.” “癰疽는 瘡瘍之大者.”라고 定義되며, ‘疔毒’은 즉 ‘疔瘡’을 이르는 것으로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膏粱之變 足生人疔”이라한 것을 미루어 考察해보면 膏粱厚味와 같은 여러가지 原因에 의하여 毒邪가 內結하여 經絡을 따라 發生하는 疾患으로 思料된다. 모두 內部的 臟腑의 病變에 原因을 두는 것으로 단순한 皮膚疾患이 아니므로 아무리 작더라도 신중히 治療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sup>88)</sup>

(사) “陰癰과 陰疽는 多生于驕恣鬱怒之人이오 或縱酒貪花之子與頻服熱藥燔灸之客이라. 故로 治法은 必須大劑化毒이니 細小湯丸은 不中病情일새라. 醫家, 病家가 各宜知之하라.” 이는 陰症의 경우는 病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治療할 때에 가벼운 藥으로 治療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大劑로 治療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이다.

(아) “外科治病은 貴識陰陽이니 陰陽既明하면 則變陰變陽之導가 何難 辨別이리오? 故로 篇中各論에 辨陰陽이 頗精하니 勿謂(비난하다.)其言之太激也하라.” 이는 辨證을 할 때에 陰陽의 區別이 가장 중요함을 說明한 것이다.

(자) “天師惡用刀鍼이나 然이나 瘡勢가 大橫하여 潰爛瘀肉하면 不急用刀鍼刺割이면 則惡毒沖潰하고 又反害肌肉하여 恐成敗壞하니라. 鐸采前賢善用刀鍼良法하여 附諸篇後하여 佐天師之未逮也니 非過街奇니라.” 이는 비록 刀鍼으로 手術을 하는 것은 좋은 治療法은 아니지만 ‘權變之法’으로서 危急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sup>89)</sup>

#### 4) 辨證玉函

##### ① 構成 및 略史

《辨證玉函》은 陳士鐸이 編纂한 책으로 新安縣의 王之策(號는 殿揚)이 校訂한 것이다. 本書는 그다지 世上에 알려지지 않아서 《四庫全書提要》, 《中國醫籍考》, 《中國醫學名人錄》, 《中國醫學大辭典》, 《中國圖書聯合目錄》 등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殘本이 上海中醫學院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修訂과 校訂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闕文과 衍文이 많으니, 특히 第 1卷이 더

88)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p.1153, p.331.

89) 陳士鐸, 上揭書, pp.11-12.

욱甚하다. 하지만, 新安 王之策의 序文中에 “陳子所輯《洞垣》, 秘籍이 尙富나 未能一一鑿行이라. 其以是編爲嚆矢也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本書가 陳氏의 書籍중 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장 첫 書籍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篇末에 “太倉公 淳于意가 燕山の 東쪽에서 전해주었으니, 그 때는 康熙戊辰六月 二日이었다.”라는 글로 맺었으니 이것을 考察해 보면, 책이 완성된 時期는 《辨證錄》이 完成되었다고 推定되는 康熙 戊辰年(서기 1688년)以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本書는 元, 亨, 利, 貞의 四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內科, 婦人科, 眼科, 齒科 等 에 걸쳐 모두 36種의 病症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다. 第 1卷은 《陰症陽症辨》으로 傷風, 中風, 吐症, 瀉症, 咳嗽, 大小便閉 等の 31門으로 나뉘어 있고 第 2卷은 《虛症實症辨》으로 咳嗽, 喘症 等の 20門으로 나뉘어 있으며, 第 3卷은 《上症下症辨》으로 怔忡, 痿症, 氣病 等 8門으로 나뉘어 있고, 第 4卷은 《眞症假症辨》으로 癰疽, 火症, 厥症 等の 15門으로 나뉘어 있다. 全書를 통해 “生死之權은 不在閻羅而在醫者之手操之矣니라.”는 精神을 가지고 警戒하여 辨證과 方藥에 있어서 醫師의 能力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本書는 證을 把握하고 病源을 論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여러가지 境遇를 모두 생각하여 여러 方面에서 자세하게 分析하였으며, 分析을 할 때에는 臨床에 應用하기 편리하도록 診斷의 要點을 밝혀 놓았다. 아울러, 疾病의 機轉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는 正確한 理致에 根據하여 자신의 獨特한 理論을 披瀝하였다. 아울러, 處方을 活用하는 데에는 매우 慎重하면서도 圓機之道를 다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sup>90)</sup>

## ② 學術的 特徵

全書를 통하여 그의 辨證論治에 대한 特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한가지 症狀에 대하여 여러가지 側面에서 접근을 試圖하여 확실한 診斷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 몇가지 症狀을 例를 들어 紹介하고자 한다.

### (가) 吐症

吐症의 症狀은 비록 한가지로 나타나지만 病理機轉과 治療는 각기 달라서 第 1卷과 第 2卷과 第 4卷에서 反復하여 論述하고 있다. 즉 ‘卷一 陰症陽症辨’에서는 “吐而有聲或痛者是 陽症也오 倘吐而無聲하며 又純是清水거나 或今日飲食而明日盡情吐出者는 乃陰症也오 或腹中不痛거나 或遇寒即發은 無非陰症이라.”고 하여 陰陽症의 分別을 提示하였고, 그 鑑別診斷의 要點에 있어서는 “看舌之滑與燥而已矣니라”하여 舌診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따라서, “陽症은 口必渴而舌必燥오 陰

90)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古籍研究室, 《辨證玉函》評述, 上海中醫藥雜誌, 1983. 第4期, p.38.

症은 口不渴而舌且滑也라.”고 하였다.91)

위와 같이 陰陽을 나누어 辨證을 한 후에는 ‘卷二 虛症實症辨’에서는 다시 朝吐, 暮吐, 飽吐, 饑吐, 水吐, 虫吐 등의 각 症狀에 따른 虛實의 區別을 試圖하였으니, “朝吐者는 陽氣虛也라.”, “暮吐者는 陰氣虛也라.”, “饑吐者는 邪火之實야라.”, “飽吐者는 寒邪之實也라.”, “虫吐에는 有虛有實이니 虛則寒이오 實則熱也라.”, “水吐亦分虛實하니 吐黃水는 爲實이오 吐清水는 爲虛라.”하였다. 治法에 있어서는 八味地黃元으로 朝吐를 治療하는데 “能水中生火하여 以煮土中穀氣하니라.”고 하였으며, 六味地黃丸湯이나 四物湯加 人尿, 人乳로 暮吐를 治療한다고 하였고, 理中湯으로는 饑吐를 治療하였다. 虫吐에는 定虫丹을 立方하여 虛實을 分別하여 加減하여 使用하도록 하였고 水吐中에서 虛에 屬하는 者는 過水丹으로 治療하였고 飽吐에 있어서는 “往往有一吐而病自愈니라.”고 하였다. 92)

陰陽과 虛實을 區分한 後에는 다시 ‘卷四 眞症假症辨’에서는 吐症의 眞症과 假症을 區別하였는데 “眞吐者는 止胃氣之病이니 治其胃而卽安이라. 其症心中泛泛然하고 一時而來하니 非平昔之素有疾病이라.”하고, 假吐症이 있는 者는 반드시 其他의 病症을 兼하고 있기 때문에 “正以病非一端而方難執一耳라.”하여 分別하였다. 93)94)

#### (나) 痰症

痰症의 境遇에는 痰이 生하는 原因으로 ‘卷一 陰症陽症辨’에서는 “非陽氣之衰면 卽陰氣之乏也니라.”고 陰陽을 나누어 說明하였고95), 또 治痰에 있어서는 우선 大槳히 上下를 分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卷三 上症下症辨’에서는 “痰在胃中者는 上也오 痰在脾中者는 下也며 膽在腎中者는 下之下也라.”하여 痰의 不同한 症狀을 上, 中, 下의 三部로 나누어 論治하였다. 이 方法은 病情을 觀察하고 病因과 病理機轉을 分析하여 臨床에 應用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다. 즉 痰이 上에 있는 者는 “必感風寒而得之”니 그 痰의 症狀은 “或黃或白하고 或成塊而膠結不開하고 或嘔吐而終朝不已하고 或胸悶而作脹하고 或鼻塞而氣粗하고 或咳嗽而隨吐하고 或咯唾而難出하고 或如敗絮하고 或如黃膿이라”하였고, 痰이 下에 있는 者는 “雖有脾(中)腎(下)之別而症實相同하니 脾氣之虛而後腎水泛과 腎氣之乏而後脾土之虧가 原相因而至也니라.”하여 中脾와 下腎의 痰症이 兼하여 나타는 機轉을 說明하였고, 아울러, “其症則有純吐清水者는 蓋命門이 無火則水寒이오 命門이 無火則

91) 陳士鐸, 辨證玉函,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0-14.

92) 陳士鐸, 上揭書, pp.129-138.

93)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古籍研究室, 上揭書, pp.38-39.

94) 陳士鐸, 上揭書, pp.227-228.

95) 陳士鐸, 上揭書, p.67.

土亦寒하니 水土가 既寒하면 又何有堤防之障哉리오 勢必狂潤洶涌上騰泛濫而不可止遏이라.”하여 下部 痰症의 症狀이 有純吐清水한다고 하였고, 그러한 症狀이 나타나게 되는 理由를 命門의 火衰로 因한 水土의 寒으로 因한다고 하였다. 陳氏는 표면상으로는 비록 上下만을 나누어 說明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說明속에 表裏, 寒熱, 虛實에 관한 言及이 모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上焦의 痰을 肺中の 痰으로 認識하던 종래의 見解와는 달리, 肺中の 痰으로 알고 있던 것이 실제로는 胃中の 痰이라고 한 것이다. 그 理由를 그는 “肺는 乃嬌臟이니 一物不容이니라.”고 간단히 提示하였고 “肺痰者는 因肺有病而謂之也니 其實은 皆胃中之痰耳라. 若心亦有痰이오 肝亦有痰이나 二皆因其病而命名而終不可謂心肝有痰하여 不統之于胃中也라. 故로 言胃而凡有在上之痰이 舉皆包之矣니라.”하여 肺心肝 등은 痰症의 末端的인 症狀만이 表現되는 臟器일 뿐이고 上焦의 痰의 根本原因은 胃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上焦의 痰을 治療하는 데에 있어서도 “治上之痰은 奈何오 健其胃而清其痰이며 補其氣而利其濕이니라.”하여 原因이 되는 腸器로 보는 胃腸에 治療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sup>96)</sup>

痰을 上下로 나눈 以後에는 ‘卷四 眞症假症辨’에서 다시 痰을 眞假로 明確히 區分하였는데 “如人終年終月吐痰如蟹涎者는 此非眞痰也라. 此乃腎之精이 腎火로 挾之하여 而化爲痰이니 如釜中之沸니라. 乃火沸爲痰耳니라.”하였고, 假痰을 治療하는데 있어서는 “以上焦治痰之味로 投之면 而益甚이오 以中焦消痰之味로 治之而益多하니라.”하고 “必須以補陰之味하고 而且上滋乎肺金之氣하여 使金生水而水制火하니 水足而火自歸니라.”하여 假痰은 腎精이 腎火의 過多로 因하여 煎熬되어 發生한 것으로 그 治療에 있어서는 劫痰之劑를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補陰之味를 使用하여 清肺益水하여 上升한 火를 潛潛하게 할 것을 說明하였다. 그리고, “失時不治하면 必變爲青臭之痰하여 以成肺痿之症이리라.”하여 治療의 時期를 놓쳤을 때의 副作用에 대해서 說明하였다.<sup>97)98)</sup>

上記와 같이 여러 方面으로 나누어 辨證과 鑑別診斷및 治方과 治法을 敘述한 것은 그 內容이 매우 자세하며 타당하기 때문에 臨床的으로 應用하기에 매우 便利하다. 이러한 特徵은 단순히 위에 羅列한 症例에서 뿐만이 아니라 全書를 통틀어 거의 모든 症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sup>99)</sup>

#### (㉔) 怔忡

怔忡症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不離乎心”한다고 認識하여 或은 驚則氣亂하여

96) 陳士鐸, 上揭書, pp.192-193.

97)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古籍研究室, 上揭書, p.39.

98) 陳士鐸, 上揭書, pp.192-195.

99) 陳士鐸, 上揭書, pp.241-243.

心腎이 不寧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或은 心血이 不足하여 心이 滋養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或은 腎陰이 不足하여 心火가 內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或은 心陽이 虧虛하여 心이 溫煦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或은 陽虛로 因한 停水가 위로 凌心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였고, 或은 瘀血이 絡脈을 막아서 心陽이 막혀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陳氏는 本書에서 臟象學說에 立脚하여 五行의 相生, 相克, 相乘, 相侮의 理論을 가지고 怔忡의 原因이 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즉 卷四 上症下症辨에서 怔忡의 病理機轉을 上下로 나누어 說明하였는데, 上症의 根源은 肺에 있고 下症의 根本은 腎에 있다고 하였으며, 그 모두가 다 肝과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그 理由는 心은 藏神하고 肝은 攝魂하기 때문에 心肝이 虛弱해지면 神魂이 不寧하여 怔忡이 發生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上症은 “因肺金失令하면 則肝木이 寡畏以克脾土라. 脾土가 爲肝所制하니 事肝木之不暇어늘 又安能上奉于心乎리오? 心無脾土之輸하니 而肝木이 又旺하여 自己奠大하여 不顧心君之子하니 此心所以搖搖靡定而怔忡之症이 起矣니라.” 怔忡病의 根源은 肺金의 失調에 있으며, 그로 因한 肝의 亢盛으로 因하여 心君이 尊待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症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症狀도 “必兼咳嗽而飲食은 能食이나 不能消니라.”고 하여 肺와 脾의 症狀를 兼하고 있다고 하였다. 治病에 있어서도 “合肺脾心肝四臟之藥而治之라.”고 하여 肺를 補하여 金을 養하고, 그리하여 金이 潤澤해지면 自然히 肝이 抑制되며 그리하면, 亢盛했던 木이 靜하게 되고 木이 靜하게 되면 能히 藏血하여 安魂할 수가 있고, 아울러 心液을 滋養하여 寧神할 수있게 되니 怔忡症은 自然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下症은 “乃腎水가 耗竭하여 不能上輸于肝木하고 而肝木이 自顧도 不遑이니 又安能上養于心乎리오? 心血이 既耗하니 又安能下通于腎이리오? 心腎交가 困하니 怔忡이 時生不止니라.”하여 腎水의 耗竭로 因한 心腎不交를 病因과 病理機轉으로 提示하였다. 그 症狀인 즉 “兼吐痰清水하고 飲食은 知味而苦하여 不能多라. 聞人言則驚하고 見天光可畏하며 時時懊惱하고 刻刻煩悶이라.”하였고, 治療에는 “補心肝腎之聖藥하여 三經을 大補하면 則氣血精이 皆足하니라.”고 하여 母子(腎肝心)를 相生시키는 方法으로 滋水하므로 涵木하고 柔肝하여서 養心하면 “自然煩去而心安하고 悶除而魂靜也”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00)101)</sup>

綜合的으로, 怔忡을 治療할 때는 心만을 治療할 것이 아니라 五行理論을 根據하여 乘侮關係를 勘案하면서 다른 周邊 藏器까지 兼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

100)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古籍研究室, 上揭書, p.39.

101) 陳士鐸, 上揭書, pp.183-186.

였으니 怔忡이란 疾病을 說明하는데 있어서 매우 獨特하면서도 妥當한 면이 있는 論述이라고 思料된다.

以上을 綜合해 보면 《辨證玉函》一書는 鑑別診斷으로 經을 삼고 立法制方으로 緯를 삼아서 辨證의 要點을 잘 把握하여 病原을 洞察하고 症狀을 나누어 分析하는데 있어서 法度가 嚴密하였으니 “開卷에 必獲大益이오 臨診에 定有準繩이라.”한 것이 過한 칭찬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書籍이라고 思料된다.

### 5) 脈訣闡微

#### ① 構成

《脈訣闡微》는 一名 《鬼眞君脈訣》이라고도 하는데 現在에는 《辨證錄》의 뒤에 附錄으로서 傳하고 있다. 全書는 모두 5篇으로 構成이 되어있는데 第1篇에는 診脈에 대한 總論 部分으로 38가지의 脈象에 대하여 說明하였고, 寸關尺의 定位, 診脈할 때 醫師의 자세, 四時에 따른 順逆脈 및, 診脈의 일반적인 機轉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第2篇에는 脈象에 따른 病症에 대하여 자세히 論하였고, 第3篇에는 寸, 關, 尺의 部位에 따른 각 病症을 說明하였다. 第4篇에서는 症狀別로 脈象을 列舉하고 그에 따른 生死脈을 言及하고 있으며 第5篇은 ‘婦人, 小兒脈訣’로서 婦人과 小兒를 診脈할 때에 特徵과 注意해야할 점들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全體的으로 簡略하면서도 脈에 대한 原理와 實際를 잘 說明한 書籍으로 思料된다.

이 책을 《辨證錄》의 뒤에 붙여 놓은 이유는 《辨證錄·凡例》에 잘 나타나 있는데 “辨證不辨脈者는 以證之易識也일새니 苟能知證이면 何必辨脈哉리오. 雖然이나 辨證更能辨脈하면 則治病益精하리니 又在人善用之耳니라.”<sup>102)</sup>한 것에서 《辨證錄》이 비록 辨證에 의한 施治에는 不足함이 없는 책이지만 辨脈이 不足하였고 辨證과 辨脈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② 學術的인 特徵

(가) 五臟을 爲主로 診脈하였다.(看脈以五臟爲主)<sup>103)</sup>

陳氏는 診脈을 할 때에 五臟만을 살핍으로써 나머지 六腑까지 모두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鬼眞君脈訣序’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盖病分臟腑나 若脈則傳臟而不及腑하니 寧脈與病異哉아? 不知病必兼臟而脈不可兼臟也니라. 《靈》, 《素》二書에는 有時合而言之어늘 何今傳《脈訣》은 獨與病殊乎아? 以臟病而腑亦病이오 腑病而臟亦病일새니 故로 治臟而腑在其中이오 切臟而腑亦在其內니 又何必合言之리오?”<sup>104)</sup>하여 診脈을 할 때에 臟腑를 나눌 필요가 없이 五臟의

102)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5.

103) 陳士鐸, 上揭書, p.854.

脈을 가지고 六腑의 病까지도 類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七腑部位는 《內經》에 雖分하여 似乎有一定之理나 而究難別臟腑之異하니 不若單切五臟하여 論其五行生克하여 病情反無可遁也니라.”<sup>105)</sup>하였다. 즉 區別하기 힘든 臟腑의 脈象에 대한 區別보다는 五臟의 脈을 통한 病理의 類推解釋을 重要하게 본 것이다. 그는 이런 類推를 施行할 때에 症狀의 參考를 必須 條件으로 꼽고 있다.

(나) 診脈의 基礎적인 部分을 爲主로 說明하였다.(鬼眞君脈訣之妙 妙在淺近)<sup>106)</sup>

陳氏는 脈의 精微한 것은 淺近한데서 出하므로 지나치게 深奧한 것만을 구하려 한다면 도리어 그 脈의 理致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脈을 보는 方法을 기본적인 것부터 자세히 說明하였으니 예를 들면 “切脈貴先調息하니 吾息調而後可以察病人之息이라. 蓋病人之息은 呼吸이 不倒하니 未有能調者也니라. 倘醫者之息이 不平하면 又何以知病人之息哉리오? 故學醫者가 平日學導引之法하면 則呼吸之間에 無太過不及하여 自然下指之時息數分明하여 可以察病人之脈也니라.”<sup>107)</sup>하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醫師의 調息을 위하여 導引法으로 平素부터 修練을 하여야 한다는 內容까지도 설명하고 있으므로 많지 않은 內容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說明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올바른 診斷을 위해서는 어려운 脈理만을 窮究할 것이 아니라 辨證과 더불어 診斷하여 患者의 狀態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看脈은 必須看症이니 蓋症은 所以印症夫脈也일새라. 夫人之脈은 不同하니 有天生陰脈而不見之於皮毛之內니 又將何處看脈이리오? 故로 必觀其症候之若何오 而症候正難辨也니라. 或者是 其起居之靜躁니 靜爲陰而躁爲陽也오….”<sup>108)</sup>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診斷에 있어서 辨證을 重要視한 그의 學術 思想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다) 陰陽五行의 原理에 따라 脈理를 說明하였다.

陳氏는 그의 다른 書籍과 마찬가지로 脈理를 說明하는데 있어서도 陰陽五行의 理致에 따라 說明을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內經》에도 言及된 四時에 따른 脈象에 따라 生死를 구별하는 方法을 五行 生克의 原理에 따라 설명하였고, 각 臟腑의 病에 따른 脈의 吉凶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臟腑之病은 雖各不同이

104) 陳士鐸, 上揭書, p.853.

105) 陳士鐸, 上揭書, p.863.

106) 陳士鐸, 上揭書, p.855.

107) 陳士鐸, 上揭書, pp.864-865.

108) 陳士鐸, 上揭書, p.865.

나 要不外五行之生克이니 逢生則病易愈也오 逢克則病難痊也니라.”<sup>109)</sup>하는 論述을 하였다.

## 6) 外經微言

### ① 構成 및 略史

《外經微言》은 歷代의 여러 圖書館의 藏書目錄에 모두 나타나지를 않는데 현재는 1984年 中醫古籍出版社에서 天津職工醫學院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抄錄本을 影印하여 刊行 出版한 책이 있다. 이 抄錄本은 國內에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中國에 약간만 출판되어 있다. 그리고, 그 또한 이미 破損된 것이 많으며 序文, 凡例, 跋文 등이 모두 보이지를 않으며, 中醫古籍出版社에서 出版할 때 前言에서 말하기를 “《外經微言》은 原題岐伯天師가 傳하고 陳士鐸이 述이라하나 爲後人託名之作이라. 撰者는 無可考니라.”하여 《外經微言》의 著者가 陳氏라는 것에 대하여 異見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情況을 미루어 보아서 이 책이 陳氏의 著述임을 알 수 있다.

陳士鐸은 《辨證錄·凡例》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岐天師傳書가 甚富하나 而《外經》一編이 尤奇라. 篇中秘奧가 皆采之《外經》이니 精鑿居多오 非無本之學也니라. 鐸이 晩年에 尙欲箋釋《外經》하여 以求正于大雅君子也하노라.”<sup>110)</sup> 이는 陳士鐸이 《外經》이란 책의 注解書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內容이다. 陳氏는 《辨證錄》을 淸·康熙 丁卯年 卽 西紀 1687년부터 著述에 着手하였는데, 그 序文에서 스스로 “鐸年이 過六旬하여 精神衰過라.”하면서, 다시 “欲箋釋 《外經》”이란 말을 한 것이다. 스스로 나이가 너무 들어 《辨證錄》의 著述을 完成하기에도 힘이 부쳤다고 하면서 다시 어찌면 著作보다도 더 힘이 든 새로운 책의 註解를 달고자 하였다는 것은 常識的으로 理解가 가지않는 部分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陳氏가 《外經》이란 책을 처음으로 받아서 註解에 着手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當時까지 著述해 오던 《外經微言》이란 冊의 마무리를 하고자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外經》이란 이름은 《漢書·藝文志》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책은 일찌기 없어졌다. 《外經微言》 第3卷의 ‘任督生死篇’에서는 “神哉論也여 請載《外經》하여 以補《內經》未備하노이다.”하였다 하는데 이곳에서 말한 《外經》은 지금의 《外經微言》을 簡稱하였을 따름이다.

或者는 陳氏의 다른 著書중에 《外經微言》이란 이름이 나오는 곳이 없고, 다

109) 陳士鐸, 上揭書, p.857.

110) 陳士鐸, 上揭書, p.17.

만, 《辨證錄·凡例》에서 《外經》의 名稱만이 나온다는 것에 根據를 두고 原書의 이름이 《外經》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可能性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陳氏의 다른 著書의 題目과 內容들을 볼때 스스로의 著作에 ‘經’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外經微言》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乾隆 55年 (1790年) 陳氏의 曾孫인 陳鳳輝가 《洞天奧旨》에 쓴 跋文中에 보인다. 그리고, 嘉慶 8年 (1803年) 浙江 《山陰縣志》에서 陳士鐸의 著書中에 《外經微言》이란 이름이 記載되어 있다. 그 뒤의 陳氏에 대한 史籍에는 모두 이 內容을 좇아 쓰고 있다. 《外經微言》中에 “微言” 두 자는 陳士鐸의 原書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陳鳳輝가 加入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第3者가 加入하였는지는 確實하게 考察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래에 보이는 여러가지 情況들을 미루어 《外經》은 《外經微言》이란 題目을 簡稱한 것이라고 推測할 뿐이다.

(가) 《外經微言》의 著述 方法은 格調와 託名한 形式 및 書中에 道家의 學說과 醫學을 接木시킨 것 같은 內容들이 모두 《石室秘錄》, 《辨證錄》, 《洞天奧旨》 등의 醫學 書籍과 같다.

(나) 그 중에 있는 學術 思想이 기본적으로 陳氏의 從前에 널리 알려진 《石室秘錄》, 《洞天奧旨》, 《辨證錄》 등과 一致하며, 심지어 어떤 境遇에 는 글을 이루는 기본 틀까지도 똑같은 것이 있다.

《外經微言》의 成書年代는 確實하게 考證할 수는 없다. 하지만, 陳氏의 《辨證錄·凡例》를 根據해서 考察해 보면 “鐸年已 過六旬하여 精力衰過라.”하는 內容과 “鐸晚年尙欲箋釋《外經》이라.”하는 內容을 보고, 《辨證錄》이 康熙 丁卯年 (西紀 1688年)에 著述을 시작한 것을 보면 《外經微言》은 《辨證錄》보다 뒤에 完成된 것을 알 수 있고, 《石室秘錄》中에는 六臟七腑에 대한 簡略한 理論의 紹介만이 있었을 따름인데, 《外經微言》에서는 자세히 說明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石室秘錄》의 完成 時期(《辨證錄》의 完成 時期와 비슷하다.)보다도 뒤에 完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洞天奧旨》의 跋文中에 그의 曾孫子인 陳鳳輝가 記錄한 다음의 內容을 根據해 본다면 《外經微言》의 著述이 이보다는 먼저였음을 알 수 있다. “所著 《素》, 《靈》, 《本草》, 《傷寒》, 《六氣》, 《外經微言》, 《石室秘錄》, 《辨證錄》, 《臟腑精鑿》, 《脈訣闡微》, 《辨證玉函》 等書가 付梓行世 已歷有年所矣니라. 第前所刊者가 俱系內科而外科不與焉이러니 ……”<sup>111)</sup>이

111)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p.236.

라고 하였으니, 이를 본다면 《洞天奧旨》가 完成된 1694年 以前에 이미 《外經微言》이 完成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外經微言》의 成書年代는 1688年에서 1694年 사이로 推定된다.<sup>112)</sup>

## ② 學術的 特徵

《外經微言》의 學術的인 特徵은 基本的으로 그의 다른 著書들의 內容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책이 다른 사람의 僞作이 아니라 陳氏의 著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그 代表性的인 特徵을 몇 가지만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命門의 作用을 重要視하여 溫補學派의 特徵을 갖고 있다.

陳氏의 醫學 思想은 基本的으로는 溫補學派에 屬하고 있는데, 道家 學說의 影響下에서 命門의 作用을 특히 強調하였다. 《外經微言》中에 ‘命根養生篇’, ‘天厭火衰論’, ‘腎水篇’, ‘命門眞火篇’, ‘命門經主篇’, ‘眞假疑似從逆竅源篇’ 등에서 여러 가지 角度에 따라 腎家命門水火의 作用을 說明하였다. “命門經主篇”에서 說明하고 있는 內容을 例로 들어 보면, “腎中之命門은 爲十二經之主也니 …… 人非火면 不生일새라. 命門은 屬火하니 先天之火也오 十二經이 得命門之火라야 始能生生化니라. 雖十二經이 來通于命門이나 亦命門之火도 原能通之也니라. 雷公이 曰 命門은 屬火하여 宜與火相親이어늘 何偏居于腎하여 以親水氣耶아? 岐伯이 曰 腎火는 無形之火오 腎水는 無形之水일새라. 有形之火는 水能克之나 無形之火는 水能生之오 火克於水者는 有形之水也오 火生於水者는 無形之水也니라. 然而無形之火가 偏能生無形之水라 故로 火不藏于火오 轉藏于水니라. 所謂一陽이 陷于二陰之間也니라. …… 故로 心得命門而神明이 應物也오 肝得命門而謀慮也오 膽得命門而決斷也오 胃得命門而受納也오 脾得命門而轉輸也오 肺得命門而治節也오 大腸得命門而傳導也오 小腸得命門而布化也오 腎得命門而作強也오 三焦得命門而決瀆也오 膀胱得命門而畜泄也니라. 是十二經은 爲主之官而命門은 爲十二官之主니라. 有此主則十二官이 治오 無此主則十二官이 亡矣니라.” 하였으니 이 內容과 文字의 配列이 모두 《石室秘錄》 第 4卷의 ‘論命門’과 基本的으로 같다. 이 內容은 趙獻可의 《醫貫》中 ‘內經十二官論’에서 말한 命門에 대한 說明과 一致하니 “愚謂人身別有一主하니 非心也라. 謂之君主之官이라하니 當與十二官平等이오 不得獨尊心之官爲主니라.”한 內容과 “可見命門爲十二經之主니라.”<sup>113)</sup>한 趙氏의 說明을 보면 陳氏가

112) 李今坦, 上揭書, pp.30-31.

113)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8.

기본적으로 趙氏처럼 溫補學派에 屬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4)</sup>

(나) 五行의 生克學說을 가지고 病理機轉을 說明하였다.

陳氏는 五行의 生克理論을 活用하여 病因과 病理機轉을 理解하는데 뛰어난 面이 있었다. 아울러, 그 理論을 써서 臨床과 結合시키는 能力 또한 뛰어나다. 《辨證錄》과 《石室秘錄》, 《洞天奧旨》, 《辨證玉函》 등에 이러한 思想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은 境遇가 없으니, 陳氏의 學術的인 特色中的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外經微言》에서는 이에 대한 깊은 研究를 실시해서 ‘順生不生이오 逆死不死니라.’하는 理論과 ‘生中寓克이오 克中寓生이라.’하는 理論을 써서 단순한 相生相克에만 얽매이는 기계적인 五行論을 脫皮하였다.<sup>115)</sup>

### 3. 陳士鐸의 學術思想

#### 1) 辨證을 重視

陳氏는 《辨證錄》, 《辨證玉函》이란 책의 題目에서도 알 수 있듯이 辨證論治의 研究를 重要視하였다. 그는 《辨證錄·凡例》에서 “辨證호대 不辨脈者는 以證之易識也일새라. 苟能知證이면 何必辨脈哉리오? 雖然이나 辨證更能辨脈하면 則治病益精이리니 又在人善用之이니라.”<sup>116)</sup>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辨證이라는 말 속에 辨脈이란 意味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證이란 좁은 의미의 證狀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陳氏는 《辨證錄》의 全書를 통하여 辨證에 대한 자세한 說明만을 試圖하였고 달리 辨脈이나 辨舌의 方法을 取하려 하지 않았다.

《辨證玉函》의 中風症의 境遇에는 “有中陽氣之虛며 有中陰之溷니라.”하여 區別하였고, 辨證의 關鍵은 ‘眼’에 있다고 하였으니 “眼直視(不閉佚)는 陽虛也오”, “目雙閉不開者는 陰虛也라.”하여 鑑別診斷의 要點을 提示하였으며 治療에 있어서도 風이란 한가지 原因만을 고집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다.<sup>117)</sup>

吞酸症과 같은 境遇에서도 비록 原因이 모두 “皆是肝木之凌土”이긴 하지만 陰에 屬하거나 陽에 屬하는 區別이 있어서 “脾受肝火之侵은 多屬于陰이오, 胃受肝

114) 李今坦, 上揭書, p.31.

115) 李今坦, 上揭書, p.31.

116)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5.

117) 陳士鐸, 辨證玉函,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p.7-10.

火之犯은 多屬于陽이라.”고 하였다. 陽分에 病이 든 자는 “心中嘈雜이 如火之焚燒하여 飲水而輒吐하고 吐水必黃綠之色이오 如醋之酸而不可聞이라.”고 症狀을 記載하였고, 治療는 舒肝시키며 火鬱을 解해야 한다고 하였다. 陰分을 犯한 者는 “雖胸中作酸而不甚하니 今日食之가 必至明日이라야 吞酸而不可咽이오 口雖渴이나 飲之水而酸更加하고 吐出必純是清水이니 可用熱物而不可用涼物이니라.”하고, 治療는 健脾利濕하고 兼하여 補腎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兩者는 寒熱虛實에 區別이 있어서 辨證施治에 있어서도 判異하게 다른 점이 있다.<sup>118)</sup>

汗症에 있어서도 原因을 區別하기를 “陰氣不能固而陽氣始能外泄”과 “陽氣不能收而陰氣外逆”이라는 區別을 하였다. 또 一般的으로는 ‘大汗亡陽’을 모두 虛證으로 分析하고 있는데, 本書에서는 ‘大汗亡陽’에도 虛實의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發狂發斑之症에 …… 大渴引飲하고 …… 其汗必如雨之來하여 不可止알이라.”한 것은 實證이고, “潮熱而汗發星星하여 或如珠之出而闔住不流하며 或夜間有汗而晝無汗하며 或下身有汗而上身乾燥하여 見風則畏하고 見寒則止니라.”한 것은 虛症이다. 以上の 몇가지 例를 考察해 보면 각 症狀에 대한 辨證과 鑑別診斷이 매우 타당한 것을 알 수 있다.<sup>119)</sup>

理法方藥은 철저한 辨證과 鑑別에 根據를 두고 前人들이 發見하지 못했던 점을 밝힌 부분이 많으며, 處方을 쓰는데 있어서도 《內經》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獨特한 見解를 十分 發揮하였기 때문에 臨床的으로 有效하면서, 處方의 意義를 파악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例를 들면 《辨證玉函》의 中風症에서 “陽虛中風에 用三生飲加 人蔘 二兩三兩하라.”하는 것과 “陰虛中風에 自定方 ‘十寶丹’이니, 此方은 俱是純陰之劑나 仍兼用 人蔘五錢이라(麥門冬, 熟地黃各二兩, 山茱萸 二兩, 白芥子二錢, 人蔘五錢, 菖蒲一錢, 茯苓五錢, 沙蔘五錢, 五味子三錢, 牡丹皮二錢, 水煎服).”고 陰陽의 辨證에 의한 治方을 提示 하였으며 “無陽則陰無以生이니 必須加蔘爲佐使則陰生于陽之中하고 而陽回于陰之內하여 兩相須而兩相成也라.”하여 處方에 대한 說明을 提示하고 있다.<sup>120)</sup>

吐血症을 治療하는 平肝止血湯은 芍藥三兩, 炒梔子三錢, 白芥子三錢, 柴胡五分, 三七根末三錢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此方은 妙在白芍用至三兩하여 始能平其大怒之氣라. 況肝中之血이 盡情吐出하니 非芍藥之多면 何能滋潤이리오. 又慮芍藥尙不足以平肝하여 又益之以丹皮之涼血而佐之以柴胡之舒肝하고 又恐漏致之路하여 熟加三七以杜其隙하니 相制得宜하여 所以秦功如神也라.”고 하여 立方한 뜻을 說明하고 있다. 또, 火로 인한 心痛을 治療하는 先功散은 藥이 단지 四味로만 構成되

118) 陳士鐸, 上揭書, pp.92-95.

119) 陳士鐸, 上揭書, pp.64-67.

120) 陳士鐸, 上揭書, pp.7-10.

어 있어서, 芍藥五錢, 梔子五錢, 枳殼五錢, 貫中五錢으로 構成되어 있다. 梔子, 枳殼, 貫中이 다 祛火散邪시키는 藥이고, 白芍의 養血滋陰으로 調和시키니 降火시키는 中에 潤燥하여 處方의 奧妙함을 다한 것이다. 方藥의 加減에 있어서 모두가 깊은 뜻이 있으며 자세한 分析을 加하였으니, 옛 사람들을 이어 辨證施治의 오묘함을 다하였으면서도 대담하게 자신의 새로운 見解를 披瀝하여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功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sup>121)</sup>

## 2) 溫補를 重視

陳氏는 陽氣가 人身의 本元으로 身體 機能이 이것으로 인해 盛衰하며 體力의 強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延年益壽하는 것이 모두 陽氣가 充分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본다면 그는 男子의 性機能 衰弱을 分析하여 辨證施治를 하나갈 때 元(陽)氣의 作用을 重要하게 여겼으며 따라서, 心脾腎의 陽氣를 溫補하여 陽萎, 早泄를 治療하고자 하였다.

脾는 生化의 根源이며 氣血의 母이고, 腎은 陽氣의 根源이면서 藏精을 하는 곳이며 心은 一身의 主宰者로서 身體의 機能을 調節하는 臟腑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三臟의 陽氣가 衰하게 되면 男子의 性機能 減退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陳氏는 “男子有交感之時에 婦人正在興濃而男子가 先萎하여 陽事不堅하고 精難射遠은 人以為命門之火衰也나 誰知陽氣之大虛乎리오. …… 此氣也는 乃五臟之眞氣니라” 하였고, “男子有精滑之極하여 一到婦女之門하면 即便泄精하니 欲勉強圖歡이나 亦不可得이오 且泄精이 甚薄하거늘 人以為天分之弱也나 誰知心腎之兩虛也리오.” 하였고, “人有交感之時에 忽然陽萎不舉어늘 百計引之나 終不能扣勇而戰한대 人以為命門火衰나 誰知心氣之不足乎리오.” 하였고, “人有精薄精冷하여 雖亦能交接이나 然半途而廢하고 或臨門即泄하나니 人以為命門之火衰나 雖知是脾胃之陽氣不旺乎리오.” 하였으니, 陳氏가 列舉한 여러가지 性機能 減退의 症狀은 모두 陽萎, 早泄의 範疇에 속하니 그 病理機轉은 心腎脾胃의 陽氣不足으로 보았다.

“氣旺則陽旺하고 氣衰則陽衰하니라.” 하였으니, 心氣가 旺盛하면 性機能도 자연히 心腎의 統制를 받아 動하게 될 것이다. 陳氏는 “君火一動하면 相火翕然隨之하니 君火旺而相火又不衰리라. 故로 能久戰不衰니라. 否則君火先衰不能自主하여 相火則襲于其傍而心中無剛強之意리니 何能自振乎리오.” 하여, 一般的인 命門, 相火만을 治療하는 治療法이 아닌 心君火를 治療하는 것이 本治라고 하였다. 治法에 있어서는 溫補法을 使用하여 黃芪, 人蔘, 白朮, 麥門冬, 五味子, 遠志, 酸棗仁,

121)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古籍研究室, 上揭書, pp.38-39.

柏子仁, 肉桂, 菟絲子, 巴戟, 熟地黃 등을 써서 心氣의 不足을 補하며 兼하여 溫陽을 시켰다.

精은 비록 腎에 貯藏되어 있으나, 그것을 運用하여 人體에 활용하는 實權은 心과 心氣의 盛衰와 關聯이 있으니 性機能의 強弱뿐만이 아니라 精液의 秘泄에 모두 關與를 한다. “心氣가 旺則相火聽令于心君이오 君火衰則心火反爲相火所移니라. …… 故心君之火가 一動하면 相火가 卽操其柄하여 心은 卽欲謹守其精이나 相火已暗送精于精門之外하니라.”한데서 그의 心火를 重要示여긴 思想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治法은 “補心火之不足이오 不可瀉相火之有餘니 選用黃芪, 人蔘, 白朮, 柏子仁, 遠志, 肉桂, 五味子 等하여 補氣強心하고 助以菟絲子, 巴戟肉, 淫羊藿 等하여 溫陽하니라. 雖似益命門之火나 實乃上濟心中之陽이니라.”하였다.

腎中の 陽氣는 命門의 火인데 腎中 陽氣가 充實한지의 與否는 腎의 藏精能力에만 關係된 것이 아니라 脾胃의 生化機能과도 관련이 있으니, 만약 腎中の 陽氣가 不足하여 土를 救援하지 못하면 脾胃의 後天의 氣가 더욱 衰微해지고, 이에 “雖能交接이나 然半途而廢하고 精薄精冷커나 或臨門卽泄하니라.”하는 症狀을 誘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治法은 “必須補先天命門之火하고 更補後天脾胃之土하면 則土氣가 旣旺하며 火又不衰하여 庶幾氣溫精厚乎인저.”하여 先後天을 兼補하는 方法을 提示하였다. 따라서, 黃芪, 人蔘, 白朮, 淮山藥, 山茱肉, 菟絲子, 補骨脂, 巴戟 等 培土煖腎하는 處方을 提示하였으니 술 아래에 少火가 항상 따뜻하게 덮혀주고 있는 形狀을 띠고 있어서 後天의 坤土로 하여금 化生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준다.<sup>122)</sup>

### 3) 獨特한 五行生克 學說

陳氏는 그의 著書에서 ‘陰陽互根’과 ‘五行生克’의 理致에 맞추어 病理機轉을 說明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醫家들이 같이 써오던 方法이므로 더 이상의 考察은 필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相生, 相剋의 機械的인 五行觀에서 脫皮하여 ‘生中有剋’, ‘剋中有生’, ‘生不全生’, ‘剋不全剋’, ‘生畏剋而不敢生’, ‘剋畏生而不敢剋’ 등의 理論을 開發하였다. 《辨證錄·凡例》를 보면 “各門辨證이 專講五行生剋之理나 生中有剋이오 剋中有生이라. 經權常變하고 顛倒紛紜하니 貴人善讀之니라.” 이에 그의 著書인 《石室秘錄》의 ‘論五行’의 內容을 中心으로 아래에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 ① 生中有剋

‘生中有剋’이란 原來는 相生作用이 일어나는 藏器들 사이에 不調和가 일어나면 도리어 그 機能을 抑制시키는 作用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陳氏는 여기에 대하

122) 陸惠銘, 淺論陳士鐸調氣治不育, 新中醫, 1992. 第2期, PP.38-39.

여 “何以見生中有尅고? 腎生肝也에 腎之中有火存焉이니 腎水乾枯하면 腎不能生肝木矣오 火無水制則腎火沸騰하여 肝木必致受焚燒之禍리니 非生中有尅乎아? 治法當急補其腎中之水니 水足而火息하면 腎不尅木而反生木矣니라. ……”하여 水生木하는 것이 常道이지만 疾病이 있게 되면 도리어 水克木의 結果를 發生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常道를 벗어나게 하는 要因으로 각 藏器의 水의 不足을 들었는데, “以上五者是 言生中有尅이니 實有至理오 非漫然立論이다. 倘腎中無水면 用六味地黃丸湯大劑로 與之오 肝中無水면 用四物湯이오 心中無水면 用天王補心丹이오 心包無水면 用歸脾湯이오 脾胃無水면 用六君四君이오 肺經無水면 用生脈散이니 舉一而類推之可也니라.”하였다. 123)

즉, 일반적인 五行相生의 原理대로 藏腑의 機能이 잘 調節이 되려면 각 藏器의 水氣가 不足함이 없어서 그 機能이 너무 太過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機能이 너무 太過하게 되었다면 각 藏器에 맞는 補陰藥을 써서 그 機能을 調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② 尅中有生

‘尅中有生’이란 일반적으로 相尅作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藏器들 사이에 사실은 相生을 위한 作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陳氏는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何以見尅中有生고? 平肝尅土也而肝木非土면 又何以生이리오? 然而肝木未嘗不能生土니 土得木以疏通則土有生氣矣니라.” 즉, 木의 疏通하는 氣運이 濕土의 尼滯하기 쉬운 屬性에 제제를 가하는 것을 ‘尅中有生’이라고 한 것이니 五行의 相尅이란 단순한 尅이 아니라 太過함을 抑制하여 調和를 이루기 위한 ‘必要尅’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陳氏는 “知其顛倒之奇면 則治病自有神效之奇리라.”하여 治療에 있어서 이러한 理致가 重要하면서도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다. 124)

#### ③ 生不全生

‘生不全生’이란 腎水가 비록 水生木하여 肝木을 生하는 것이 常道이지만 오로지 肝木만을 生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三臟도 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陳氏는 여기에 대하여 “何以見生不全生乎아? 腎生肝也而不能全生肝木이니 蓋腎水는 無一臟不取資也니라. 心得腎水而神明始煥發也오 脾得腎水而精微始化導也오 肺得腎水而清肅始下行也오 肝得腎水而謀慮始決斷也라.”하였다. 125)

#### ④ 尅不全尅

123) 陳士鐸, 石室秘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p.211-212.

124) 陳士鐸, 上揭書, p.212.

125) 陳士鐸, 上揭書, pp.212-213.

‘剋不全剋’이란 腎이 비록 心火를 剋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일 腎中의 火가 太過하게 되면 나머지 三臟이 모두 剋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剋이란 相剋의 정상적인 剋이 아니라 病理의인 剋을 이른다. 陳氏는 여기에 대해서 “何以見剋不全剋乎아? 腎剋火也而不至全剋心火니 蓋腎火無一藏不焚燒也니 心得腎火而煩燥生焉이오 脾得腎火而津液乾焉이오 肺得腎火而喘嗽病焉이오 肝得腎火而龍雷出焉이니라.”하였다.<sup>126)</sup>

上記의 두 가지 내용은 모두 腎臟의 重要性을 論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溫補學派로서 腎水와 腎火를 중요시 하였던 점과 일치한다. 즉, 腎은 先天의 根本으로 水火의 調節을 이루는 藏器로서 나머지 모든 藏腑의 根本이 된다고 여긴 것이다.

#### ⑤ 生畏剋而不敢生

‘生畏剋而不敢生’이란 藏腑의 相互關係에 있어서 자신이 生해야 할 藏器를 만났을 때에 生의 一面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剋의 一面도 把握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陳氏는 여기에 대하여 “何以見生畏剋而不敢生乎아? 肝木本生心火也나 而肝木畏肺金之剋하여 不敢去生心火則心氣愈弱하여 不能制肺金之極盛而金愈剋木矣니라.”하였고, “見其生而制其剋하면 則生再全生이나 忘其剋而助其生하면 則剋且更剋이니라.”하였으니 生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剋의 裏面도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을 例를 들어 說明한 것이다.<sup>127)</sup>

#### ⑥ 剋畏生而不敢剋

‘剋畏生而不敢剋’이란 것에 대하여 陳氏는 “何以見剋畏生而不敢剋平也아? 金剋木也니 肺金之剋肝에 又何畏於腎之生肝乎리오? 不知腎旺則肝亦旺이니 肝旺則木盛하고 木盛則肺金必衰하니 雖性欲剋木이나 見茂林而自近矣니라. 故木衰者는 當補腎而生肝이오 不必制肺而扶肝木剋土也니라.”하였으니 이는 곧 剋의 一面을 생각할 때에는 裏面에 있는 生의 관계도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을 例를 들어 說明한 것이다. 즉, 한 藏器의 盛衰에 있어서 그것이 盛하다고 하여 그것을 剋하는 藏器를 補할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藏器를 生하는 藏器의 盛衰도 함께 考慮해야 하고 그 藏器가 虛할 때에는 그것을 剋하는 藏器만을 瀉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藏器를 生하는 藏器를 補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다.<sup>128)</sup>

上記의 두 내용은 陰陽五行의 理致를 가지고 病을 診斷하거나 治療하고자 할 때에 단순히 한 面만을 把握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가지 側面을 동시에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을 記述하는 것이다.

126) 陳士鐸, 上揭書, p.213.

127) 陳士鐸, 上揭書, p.213.

128) 陳士鐸, 上揭書, p.213.

### III. 結 論

辨證論治는 韓醫學의 疾病治療에 있어서 基本原則으로 수많은 醫家들의 研究를 거쳐 完成되었다. 특히, 明·清 時代에는 이러한 原則이 確立되면서 一般的으로 대두되었는데 陳士鐸은 《辨證錄》, 《石室秘錄》 등의 著書を 通하여 이러한 原則의 臨床應用에 큰 貢獻을 한 醫家이다. 그의 生涯와 著書を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陳士鐸은 清代의 醫家로 字는 敬之이고 號는 遠公이며 別號는 朱華子이다. 自號는 大雅堂主人이라고하며, 或은 蓮公(遠公의 誤字로 思料된다.)이라고도 한다. 그가 태어난 年代와 死亡한 年代는 確實히 考證할 수 없지만, 《辨證錄·凡例》의 內容을 考察해 보면 大略 明 天啓年間(西紀 1621年~1627年)에 生한 것을 알 수가 있고 《嘉慶 山陰縣志》에는 “陣年八十餘卒”이라고 記載되어 있으니, 이와 같다면, 그의 死亡 年度는 清 康熙 50年(西紀 1711年) 前後로 推定할 수 있다.

2. 그의 著書로 現存하는 것은 既存에 알려져 있는 《辨證錄》, 《石室秘錄》, 《洞天奧旨》, 《脈訣闡微》 外에 《辨證玉函》, 《本草新編》, 《外經微言》의 7種이 있으며 이중에 《本草新篇》, 《外經微言》은 國內에는 없으며 中國에 出版되어 있다.

3. 《辨證錄》은 14卷(附錄 《脈訣闡微》 1卷) 126門으로 傷寒, 雜病, 瘡瘍,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의 各 科에 대하여 776가지 證狀을 記載하고 있다. 많은 臨床的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20여종의 版本이 있으며, 특히 清 道光 3年(1823年) 太醫院 院使로 있던 錢松(錢鏡湖)이 本書를 十卷本으로 再編輯하여 이름을 《辨證奇聞》이라고 바꾼 것이 있는데 이 책에서 錢氏가 著者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辨證奇聞》의 著者를 把握하는데 혼란을 가져왔다.

4. 陳氏는 《辨證錄》에서 《內經》의 理論을 繼承發展시켜서 그 理論을 引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內容들을 그 자신의 獨特한 理論으로 應用하였으며, 辨證論治의 原則에 충실하게 立法方藥을 하였다. 아울러, 1988년에 著述된 《評注》는 《辨證錄》의 內容에 간단한 評注를 달았으며 醫案을 통하여 本書를 臨床에 應用하는데 편리하게 하였다.

5. 《石室秘錄》은 모두 4卷으로 되어 있으며 128가지 治法이 실려있고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 등 100餘種의 疾病에 대한 診斷과 治療를 說明하였고, 古今의 名方과 陳氏가 스스로 創案한 定方이 500餘種이 記載되어 있다. 學術的으로 六臟七腑說이나 九種에 달하는 特殊한 服藥法 등 獨特한 理論들이 많으며, 《辨證錄》과 마찬가지로 辨證論治를 중요시 하였다.

6. 《洞天奧旨》은 《外科秘錄》이라고도 하는데 陳士鐸의 外科 專門書籍이다. 全書는 16卷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現存하는 陳氏의 書籍중에 가장 뒤에 나온 것이다. 學術的으로는 手術을 選好하던 당시의 外科治療에 대하여 反對하여 內治法을 重要視하였다.

7. 《辨證玉函》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最近에야 出版되어 陳氏의 學術에 대한 研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으며, 王之策의 序文을 通하여 陳氏의 書籍중에 가장 먼저 出版된 冊이란 것을 알 수 있다. 全書는 '陰證陽證辨', '虛證實證辨', '上證下證辨', '眞證假證辨'으로 나뉘어 多角度에서 辨證을 試圖하며 各各에 診斷要點을 밝혀 놓아서 辨證論治를 하기에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다.

8. 《脈訣闡微》은 《鬼眞君脈訣》이라고 하며 《辨證錄》의 뒤에 附錄으로 傳해진다. 學術的으로는 診脈을 할 때에 五臟六腑를 다 觀察하기보다는 五臟을 觀察하여 推理할 것을 主張하였으며, 陰陽五行의 原理에 따라 脈理를 說明하였고, 診脈을 할때 醫師의 姿勢, 四時에 따른 脈象의 特徵 등 診脈을 할때 基本的인 面까지 仔細하게 說明하고 있다.

9. 《外經微言》은 國內에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最近에 中國에서 出版된 版本도 序文, 凡例, 跋文 등이 모두 없어서 陳氏의 著書라는 데에 論難이 있으나, 그의 다른 著書들을 考察하여 보면 學術的인 特徵이 一致하기 때문에 그 冊이 陳氏의 著述이라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10. 陳氏의 各 著書를 綜合해서 學術的인 特徵을 考察해 보면, 辨證論治에 있어서 《內經》의 理論을 基本으로 하였으면서도 應用에 있어서는 자신의 獨特한 見解에 따라 說明하였으므로 韓醫學의 辨證論治 理論을 發展시킨 중요한 醫家이고, 治療에 있어서는 溫補를 重要視하였기 때문에 溫補學派의 한 사람에 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金容辰：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大田大學校大學院，1990.
2. 尹暢烈：金元時代醫學의 學術的 特徵，慶熙大學校大學院，1983.
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漢醫學大辭典，서울，東洋醫學研究員，1985.
4. 洪元植：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研究院，1978.
5. 裘沛然外1人：中醫各家學說，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2.
6. 王琦外4名：素問今釋，貴陽，貴州人民出版社，1981.
7. 中國中醫研究院中國醫史文獻研究所：中醫人物辭典，上海，上海辭書出版社，1988.
8. 李雲：中醫人名辭典，北京，國際文化出版公社，1988.
9. 陳士鐸：辨證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
10. 陳士鐸：洞天奧旨，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1991.
11. 張燦珮：《石室秘錄》的學術特色，中醫雜誌，1986 第3期.
12. 錢松：辨證奇聞全書，서울，大星文化社，1992.
13. 陸鴻元外1人：辨證有倉見評注得要領，上海中醫藥雜誌，1992 第4期.
14. 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서울，一中社，1991.
15. 陸惠銘：陳士鐸論治男科病經驗，上海中醫藥雜誌，1989 第12期.
16. 施鴻燿：辨證奇聞評注，上海，上海科學普及出版社，1989.
17. 陳士鐸：石室秘錄，서울，大星文化社，1993.
18. 李今垣：《外經微言》的作者成書年代，中華醫史雜誌，1992.
19. 賀福田外2人：陳士鐸特殊服藥法九種，四川中醫，1993 第1期.
20.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1987.
21. 上海中醫學院中醫文獻研究所古籍研究室：《辨證玉函》評述，上海中醫藥雜誌，1983 第4期.
22. 陳士鐸：辨證玉函，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9.
23. 陸惠銘：淺論陳士鐸調氣治不育，新中醫，1992 第2期.